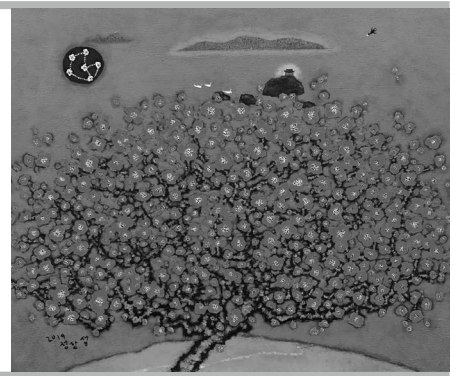




표지이야기

정상섭, 푸른바다, 60×50cm, 캔버스에 아크릴, 2019

조선대학교미술과 및 동대학원미술전공 졸업. 개인전 25회(서울, 광주, 휴스턴, 필라델피아), 백제의 바람전-교토, 국제트리엔날레-대전, 현대미술투영전-타이페이, 갤러리 회화제-서울, 부산 그외 그룹전 170여 회, 한국미협, 전업미술가회, 국제현대미술교류회.

2	‘창’을 열며 옛집에 담긴 그리움의 이유	정광민
3	특집기획_ 민선 7기 전반기 문화정책 진단 및 발전 방안 코로나-19, 문화예술, 그리고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집중해야 할 일은? 공연예술현장에서 바라본 민선 7기 전반기 성과와 한계 초상집 개가 된 청년문화 시민들의 문화적 삶, 한계 극복을 위한 제언	김하림 김기곤 김양균 윤준혁 고선주
14	문화인 탐구생활 꽃으로 피워내는 문화	이지호·김미정
19	기획연재_ 호남지역의 서원, 향교, 사찰, 정자의 현판과 주련이야기 달과 함께 산수에 노니는 풍류	임준성
22	문화진단 마한역사문화권 설정의 당위성 코로나 시대의 오월정신	임영진 주 흥
26	문화현장 시(詩)와 꽃잎과 목마른 기다림 전일빌딩 245, 문화콘텐츠로 다시 태어나다	김정희 박홍근
32	문화청년그룹 어떤 일을 도모합니다, 없던 일을 도모합니다	이하영
34	문화리뷰 이토록 선명한 즐거움	김원경
36	문화톡톡 코로나로 인해 발전하는 언택트(Untact) 네 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 답사기 광주문학관 장소, 문제 없는가	이영재 최지화 김 중
40	책 소개	편집부
41	재단소식·회원소식·함께하는 사람들	편집부
48	편집후기	

옛집에 담긴 그리움의 이유

정광민_ 서로건축사사무소 대표, 재단 부이사장



우리나라의 기후환경은 사계절이 뚜렷이 있는 어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선조들은 오랫동안 살아온 경험을 통해 계절별 집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지혜가 오롯이 담긴 생활공간을 만들었다. 대청마루에서 앞마당 산을 바라보며 시원한 바람에 수박을 나누어 먹으며 잠깐의 낮잠으로 기운을 재충전해 여름을 보내고 추운 겨울은 구들장 온돌방 아랫목에서 두꺼운 솜이불 밑의 따뜻함에 옛집에 대한 편안함과 그리움이 있다.

칼바람과 눈보라가 치는 추운 겨울밤. 발목은 이불 밖으로 나와 있고 동생에게 걷어차인 채 윗목으로 밀려난 막내를 보면서 불어오는 찬 기운이 이마 위를 스칠 때 살얼음의 냉수를 한 모금 마시고 문틈 사이의 달빛을 보며 잠을 이루었던 기억. 오늘날에 이르러볼 때 옛집에 대한 기억은 즐겁고 좋은 기억보다 불편했던 기억이 더 많기도 하다.

그러나 이유가 있었다. 의료시설이 없다시피 한 시절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병이 나지 않고 건강 몸을 지키는 최상의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옛집은 오로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생활 속의 건강함을 유지관리 하여야만 했던 최상의 해결책이었다. 빗물과 해충이 올라오지 않게 높은 토방을 두고 거기에 주춧돌을 놓아 기둥, 보, 지붕틀을 짜 집을 지었다. 방과 마루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기

위해 토방에 띄워 구들장으로 방을 만들고 대청마루를 두었고, 방의 반을 넘게 차지하는 벽에는 외부 공기를 걸러내고 통기성이 있게 외를 엮고 그 위 양면에 진흙을 반죽하여 바르고 벽지를 발랐다. 출입창호는 창살에 창호지 한 장을 발라 방이 숨을 쉬도록 하고 채광까지 하였다. 지붕은 눈, 비를 막고 보온과 뜨거운 햇빛의 차단을 위해 산자를 엮고 그 위에 두꺼운 진흙을 덮고 벚짚이나 기와를 이었다. 옛집은 작을지라도 마당을 꼭 두어 강한 햇빛을 반사하게 하여 집안 곳곳을 소독, 살균하도록 했다. 그래서 집 주변에 풀이 나지 않게 하고 큰 나무를 심지 않은 것이다.

최근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세계적 팬데믹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나 이런 감염병은 밀집되고 폐쇄된 공간에서 빠르게 창궐하는 것이 특징이다. 과도한 단열성만을 강조한 현대 건축의 밀폐공간은 자연 환기를 어렵게 만들었고 그것은 사람의 기초 면역력의 저하로까지 이어져 질병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 선진국, 후진국 구별 없이 소리 없이 찾아오는 코로나 19를 보면서 그동안 선조들이 살아온 옛 집을 번개치 않고 지켜온 이유를 새삼 깨닫는다. 선조들이 지켜낸 문화의 힘이 우리를 건강하고 어떠한 병에도 이겨내는 면역력을 갖게 하였구나 하고 생각해본다. 새삼 옛집에 대한 이해와 애착이 간다. ㄸ

민선 7기 전반기 문화정책 진단 및 발전 방안

오는 7월 1일은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표방한 민선 7기가 반환점을 돌아 하반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문화에 '품격'이라는 용어가 적합한지는 차지하고서라도, 지난 2년 동안 지역의 문화계가 바라는 '문화도시 광주'가 제대로 가고 있나? 라고 반추해보면 공감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해야할 과제도 많습니다. 이에, 이번 특집 기획에서는 민선 7기 전반기 문화정책 진단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각계의 전문가와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과정이 문화도시 광주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 코로나-19, 문화예술, 그리고 광주
김하림_ 조선대 교수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집중해야 할 일은?
김기곤_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장
- 공연예술현장에서 바라본 민선 7기 전반기 성과와 한계
김양균_ 전통문화연구회 얼쑤 대표
- 초상집 개가 된 청년문화
윤준혁_ 상상실현네트워크 공동대표
- 시민들의 문화적 삶, 한계 극복을 위한 제언
고선주_ <광남일보> 문화특집부장

코로나-19, 문화예술, 그리고 광주

김하림_ 조선대 교수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커다란 진통을 겪고 있다. 세계 최고의 방역과 치료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은 모범국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으나, 일상이 뒤바뀐 상황은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길어짐에 따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는 물론 중소기업도 극심한 경기침체에 삶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문화예술 분야도 매우 심각하다. 공연, 전시 등이 모두 취소되고, 취소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문화예술인이 대다수이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 속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으로 버티던 문화예술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다. 예향, 문화수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자랑하는 광주의 상황은 과연 어떠한가?

광주 곳곳을 광주다움이 넘치는 도시공간으로 새롭게 디자인하고 고유의 전통문화예술, 매력 있는 관광 콘텐츠 등을 발굴·육성해 문화와 예술이 시민들의 일상이 되는 ‘품격있는 문화도시 광주’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한 광주시이다. 문화분야 공약의 세부적 내용으로

광주다운 도시 디자인, 문화수도 재도약, 광주 고유의 콘텐츠 발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내걸었다. 핵심 사업으로는 도시재생 뉴딜, 송정역 투자 선도지구, 광주문화마을, 테마형 시티투어, 광주 상설공연 등을 제시했다. 이 사업들은 순항하고 있는 것일까?

‘2020’년 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성과를 담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계획을 살펴보면, 아트도시 인증제,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주폴리 리뉴얼 사업, 문화예술 시설 확충 등이 중점이다. 도시문화예술의 창조를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가 조화롭게 유기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세 부분이 서로 선순환적으로 연계될 때 문화예술생태계가 구축되고, 정보와 창작물이 집적되고, 청년층이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2020년 계획, 나아가서 민선 7기 광주시의 계획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 인프라 구축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문화예술의 핵심에 창작자-매개자-소비자가 요구되는데 점에 비추어 볼 경우 휴먼웨어에 대한 지원과 투자

도시문화예술의 창조를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가 조화롭게 유기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세 부분이 서로 선순환적으로 연계될 때 문화예술생태계가 구축되고, 정보와 창작물이 집적되고, 청년층이 참여할 것이다.

는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물론 ‘광주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지원 및 창작자 지원, 예술인 복지지원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광주시의 독자적 플랜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을 획득하여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더 크다. 흔히 지적하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우선시되는 분야 중의 하나가 ‘문화예술’ 분야이다. 오래전부터 지역에서는 “능력 있는 청년들은 모두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는 탄식과 안타까운 목소리가 높았다. 지역에서 시간과 자본을 들여 인력을 양성해도, 다들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한 고민과 새로운 시도가 시급히 필요하다.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세대에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열정만으로 버티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청년세대의 양성 없이 문화수도 재도약, 광주 고유의 콘텐츠 발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같은 분야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시급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고통에 처하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에 대한 지원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일이다. 창작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생각한다면,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잘못하면 올 한해 문화예술계는 적막강산에 처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예향의 전통을 유지하고, 문화수도 재도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광주형 일자리처럼, 광주형 문화예술 지원시스템을 전국에 자랑할 수 있는 정책이 조속히 수립되고 진

행된다면, ‘역시 광주’라는 탄성과 성원이 집중될 것이다.

또 하나가 코로나-19가 가져온 문화예술 분야의 변화 중의 하나는 ICT 기술을 활용하거나 접목한 다양한 공연, 전시 등이다. 객석에 관중이 없더라도, 공연과 전시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를 하고, 관객들은 사회적 거리 속에서 감상하고, 실시간으로 반응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새로운 장르로 정착하고, 소비행위도 함께 성장할 것인지의 여부는 좀 더 지켜볼 일이지만, 갈수록 문화기술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은 충분히 예측할 일이다. 이 분야도 광주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미디어 창의도시 광주가 이러한 새로운 분야의 창출과 전파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누가 앞장설 것인가?

코로나-19가 향후 가져올 부정적 측면이 문화예술에는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글로벌-지역 간 교류도 힘들어질 것이고, 공연이나 전시도 어려워질 것이다. 다중이 모이는 창작행위도 기피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예상하고, 현 계획을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청년 인력들을 위해 장르별, 세대별, 단체-개인별 계획을 심도 있게 꾸리는 작업은 단순한 사회 보호장치가 아닌,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일이다.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관점과 입장에서 광주의 문화예술정책이 재정리될 필요가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집중해야 할 일은?

김기곤_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위탁 운영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이 연기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21년 연차별 실시계획으로 제출된 47개 사업(1,965억 원)을 승인함으로써 사업은 더욱 속도를 내는 분위기이다.

2020년 4월 13일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해 문화전당 운영을 ‘일부위탁’에서 ‘전부위탁’으로 결정했어야 하지만, 이 보다 앞선 3월 31일 아특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공포함으로써 문화전당 운영 주체 재설정 문제는 한 숨 쉬어갈 수 있게 되었다. 개정 내용은 ‘2020년 말까지 문화전당 운영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현재의 운영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는 문화전당 운영 주체문제는 조성사업의 핵심사안으로 재부상할 수밖에 없다. 이 사안에 대해 그동안 문체부와 광주시가 중심이 되어 대비해 왔지만, 이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합리적인 대안

을 찾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밟아갈 필요가 있다.

종반을 향해가고 있는 조성사업 국면에서 광주시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간추려보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전당 운영 체제 재결정에서 지역 주도적 관점을 강조해야 한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에 12월 31일까지 실시하기로 성과평가의 성격과 방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성과평가 결과가 향후 문화전당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데 어느 정도의 규정력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의례적인 절차인지, 결과는 실질적인 강제력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사전 정리가 필요하다. 또한 2019년에 진행되었던 성과평가와는 달리, 성과평가 주요지표 구성과 평가과정에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광주시는 현재와 같이 문화전당을 일부위탁 방식으로 5년 더 연장하는 방식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가야 한다. ‘국가기관이나’, ‘민간(공공)법인이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도적 관점을

적용해야 한다. 지역 주도적 관점에는 사업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문화전당과 조성사업 간의 연계 효과를 도시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차원의 자율적 운영 관리 역량까지도 포함된다.

둘째, 지역 내부에서 조성사업 관련 문화거버넌스를 조직 운영해야 한다. 문화거버넌스는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기능적 장치이자, 조성사업이 미래에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인프라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광주시와 시민사회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민관 협의체’와 ‘시민사회협약위원회’ 구성을 놓고 논의해 온 과정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어 버린 것은 아쉬운 일이다. 이 과정에서 닦아놓은 상호 공감대를 기반으로 문화거버넌스를 구조화시켜내는 후속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

현재 광주시는 아특별에 명시된 시민사회협약위원회보다는 문화예술단체들을 중심으로 단일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듯하다. 문화예술진영 중심의 협의체는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환경생태, 도시기반, 문화콘텐츠, 지역재생 등으로 확장되어 있는 조성사업의 전체 과정을 포괄하며 공동의 대응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광주시는 시민사회협약위원회가 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도구적 장치가 아니라 조성사업 종료 이후에도 ‘문화도시 광주’를 시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실천 규범이자 사회문화적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

셋째, 광주시와 문체부 사이의 협력은 보다 넓고 강고해져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주시-문체부 간 정책협의회’는 중요한 통로이다. 조성사업의 현안에 대한 상호 소통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협의회는 2019년 2회, 2020년 1회 개최되었다. 5대 문화권 사업 및 문화전당 운영 활성화, 옛 전남도청 복원, 민간투자 유치, 제도 개선 등 조성사업에 관한 굵

직한 사안을 책임 있는 주체들이 협의하며 조정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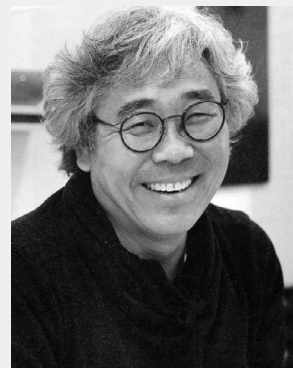
광주시는 정책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해서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분야의 제안 사업 등에 국비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전당 운영 주체 재설정,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광주 설립, 연차별 실시계획 사업 승인, 아특별 개정, 옛 전남도청 복원 등 조성사업 관련 핵심 사안을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해야 한다. 정책협의회를 통해 책임 있는 주체들이 역할을 확인하고 분담하는 모습은 조성사업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더욱 높여주는 효과도 가져다 줄 것이다.

조성사업이 마무리시기로 접어들면서 기간 연장 문제가 거론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바뀐 것은 없다. 아특별의 시효 기간이 2026년, 조성사업의 목표기간이 2023년까지 임을 감안하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더욱이 지나온 17년 동안 예산 투입량이 계획대비 32% 정도에 그치고 있는 점은 더욱 조바심을 내게 한다. 최소한 21대 국회에서 아특별의 시효 및 목표기간을 5년 연장해서 조성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광주시는 적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또한 지금 시기에는 5대 문화권을 중심으로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분야에 집중력을 높여야 한다.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 실시계획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취지와 최근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문화지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적 삶에 대한 지형을 읽고, 국가의 도시재생 및 ‘한국판 뉴딜’ 정책 분야와 연계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찾아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성사업은 한정되어 있지만, 문화도시 광주는 지속된다는 생각으로 지역의 주도성을 높여갈 준비를 해야 한다. 

공연예술현장에서 바라본 민선 7기 전반기 성과와 한계

김양균_ 전통문화연구회 얼쑤 대표



코로나 19의 여파가 공연예술현장을 쓰나미처럼 덮치고 있다.

요즘 후배들을 만나면 꺼내는 말이 ‘어떻게 지내고 있냐?’, ‘쌀은 있냐?’

돌아오는 답은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5키로짜리 쌀 한포 샀어요’. ‘인자 마이너스통장도 바닥나고 대출도 안되네요’ 등등 묻기도, 듣기도 민망한 대화들뿐이다.

광주지역에서 공연예술단체를 28년동안 이끌어 왔지만, 지금처럼 힘들고 미래의 전망이 어두운적은 없었다. 사실 IMF때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은 천재와 인재까지 겹치면서 공연예술 종사자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다가 광주의 공연예술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거란 두려움에 깊은 한숨만 나온다.

나 또한 내 삶의 꿈이었던 기업형 예술단체를 2019년 12월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보니, 튼튼하고 모범적인 기업형 공연단체를 만들어서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고 앞만 보고 달려왔던 세월에 대한 아쉬움과 지켜내지 못한 자괴감에 몇 달을 힘들어 해야만 했다.

하지만, 예술가들이 힘들었던 적이 어디 한 두 해인가?

메르스, 세월호, 신종플루, 구제역, 사스 등 일 년의 반은 개점, 휴업 상태로 보낸 지가 벌써 몇 년째이다. 모든 축제와 행사들이 취소되고 나면, 당장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는 걱정과 한숨을 등짐처럼 지고 다녀야 한다. 내년은 또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까 지레 걱정을 해야 할 상황의 연속이었다. 공연예술단체 종사자들은 전부가 생계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난 ‘예술가는 배가 고파야 한다’고 했던 선배들의 그 말이 무척이나 싫었다. 그래서 ‘얼쑤’를 창단하게 된 것이다. 28년을 지켜온 얼쑤의 가치가 현실의 벽 앞에서 부정당하듯이 산산이 부서지고 나니, 내 자신의 걱정보다는 광주에서 공연예술에 종사하는 후배들이 희망을 잃어버리지나 않을까 그게 걱정이다. 그렇잖아도 젊은 예술가들이 공연판을 떠나고 40~50대가 광주의 공연판을 유지하고 있어서 세대 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없는한 광주의 공연예술판은 사라지고 말 것이란 생각이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언제쯤 이런 걱정하지 않고, 행복한 마음으로 좋은 작품을 만들

면서 예술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볼까? 이러한 기대감은 요원한 것인가?

선거철만 되면 민선 몇 기 몇 대 과제니, 세부실행 계획까지 거창하게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시민사회단체들은 각종 의견들을 수집하고, 포럼들을 기획한다. 그럴 때면 이번에는 뭔가 좀 더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지만 거창한 구호(기초 예술 활성화방안 등)만 난무할 뿐 개선되거나 실행된 것이 별로 없다. 내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바라보는 예술가로서 민선 7기의 문화정책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작은 것부터라도 실현가능한 정책들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광주시와 문화재단, 문화정책전문가들 그리고 광주의 공연예술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다면 충분히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광주의 브랜드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성공가능한 팀과 작품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하여 집중투자를 해야 한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최소한 3, 4년 정도는 믿고, 지속적인 검증을 거쳐서 수준 높은 광주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서울을 거쳐 세계로 진출하여 성공해서 전당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세계의 예술가들이 광주의 작품을 보러 올 것이다. 또한 그런 본보기를 만들어서 광주예술가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둘째, 공연단체들이 어떤 공간에서 작품을 만들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사실 광주의 모든 공연팀들이 지하실이나 좁은 공간에서 겨우 임대비 벌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다. 타 단체나 타 장르와의 결합을 통한 대작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러다 보니 전당 개관을 해도 광주의 작품 하나 올릴 수 없지 않은가. 난 감히 제안하고 싶다. 젊은 예술가들이 거대한 상상

의 바다에서 창의적인 생각들을 풀어 놓아 해엄치게 한 후, 그들의 결합을 통한 기발한 작품들이 나오도록 대규모 창작공장과 예술가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작품창작단지 하나 조성하라고.

셋째, 광주의 예술가들이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작품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 전문성은 떨어지고 의욕마저 상실 한 채,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되어 버렸다. 이러다 보니 시에서 투자하는 작품에 광주의 예술가들은 소외되고 서울의 배우들과 제작진들에 의해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상태다. 이런 악순환은 광주의 공연예술가들을 고사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광주의 예술가들이 더 능력 있다고 본다.

넷째, 기업과 예술단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시나 문화재단이 나서서 정책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 메세나같은 대가없는 지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품앗이 형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1사1예술단체(개인)의 틀이 마련된다면 기업에서 행하는 행사에 예술단체들이 참여하고, 기업은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공연관람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문화향유의 기회가 확대되고 공연단체는 관객 모집의 압박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광주에 작품이 없기 때문이라고 단순논리로 이야기 할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광주의 공연문화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왔는가 깊게 반성해 봐야 한다. 김치나 광산업만 산업이 아니다. 공연예술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충분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관광이 굴뚝 없는 산업이라 하듯이 공연예술도 마찬가지다. 행사를 위한 소비형 문화정책 보다 생산을 위한 문화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고사 직전의 광주 공연예술이란 나무에 관심을 가지고 퇴비도 주고, 물도 주고 해서 튼튼하게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초상집 개가 된 청년문화

윤준혁_ 상상실현네트워크 공동대표



코로나 19 사태로 문화·예술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으로 인해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집체 활동(축제 및 대형 행사)이 취소되고 학교가 문 닫아 문화예술교육의 영역에서 별이를 하던 강사들도 일이 없어졌다. 일상 속 영화관, 공연장 등이 문을 닫은 것은 물론 작은 단위의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던 생활문화시설도 폐쇄되어 박동하던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예술이 멎어버렸다.

청년문화·예술인 및 청년문화·예술단체들의 삶은 어떨까? 본래 문화정책의 실무자들은 청년정책이 청년 문화·예술인을 살피주길 원하고, 또 반대로 청년정책 실무자들은 문화정책의 분야에서 그들을 케어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느 한 곳에서도 보살피주지 않는 고립무원 가운데서 청년문화·예술인들은 아위어 갔다.

사실은 청년정책에서도 문화·예술정책에서도 청년들이 대상이 되는 정책은 분명 있다. 단지 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지만 항상 청년문화·예술인은 모호한 회색으로 분류되어 지금까지 외로운 분투를 해오곤 했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해보고자 2018년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은 비장하게 준비했다. 같은 해 4

월 상상실현네트워크,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예총 등을 공동간사단체로 하고 총 38개의 문화 관련 단체가 연대한 ‘문화공동정책연대’를 결성하여 각 당의 시장 후보자들에게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것을 얼마나 수용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문화행정의 혁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실현’, ‘시민문화권 확대’ 크게 세 가지 주제 아래 10가지의 핵심 정책을 발굴했다. 사실상 이 10대 핵심 정책은 그동안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수년간 토론해왔던 정책들로 특히나 ‘각 구별 청년문화의 집 건립’이나 ‘문화예술인 사회혁신 일자리 창출’과 같은 내용들을 담아 연대하여 제언했다.

현 광주광역시 시장인 이용섭 시장은 당시 광주시장 후보 신분으로 ‘문화 개방형 공직자 확대 및 문화기관 이사회 구성 개선’,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보장 조례 제정’ 등의 두 개 항목의 유보를 제외하고 모두 동의한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당선 이후에도 인수위를 통해 몇 번의 만남을 가졌었고 무사히 정책에 반영되는 듯 보였다.

2년 정도 지난 지금 민선 7기 청년문화정책에 대한 총평을 한다면 상가지구(喪家之狗)라 할 수 있다. ‘각 구별 청년문화의 집 건립’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갔

이런 상황 속 광주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다시 돌아와 소통이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정책지원을 중앙정부가 실시한다면 지자체는 정부 정책의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차원의 정책으로 반영해야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

으나 광주시의회와 문화예술 시민사회와의 소통 부재로 인해 전액 예산이 삭감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고, 이후 그것을 다시 복구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없었다. 광주시 역시 그간 문화현장과 소통이 부족한 것을 인정했으나 인사이동 이후 소통은 없던 일이 되었다.

이러한 소통 부재는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에서 그 피해가 더 심각해진다. 정부가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피해 구제 대책을 다각도로 내놓고 있지만 실 혜택은 문화·예술인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광주광역시에는 수입 감소나 행사 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을 위해 정부의 기본 지침 외에 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부산, 인천, 전북 등 문화·예술인을 위한 긴급재원을 마련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코로나 19를 맞은 우리의 주변을 둘러본다. 두 아이를 둔 예술인, 문화 활동가 청년 부부는 이미 줄어드는 수입 때문에 생계곤란을 호소한다. 진정 문화도시, 예향의 도시가 맞는지를 반문하면서도 이제는 소통은커녕 살려달라는 목소리 내기도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예술인의 57%나 차지하는 전업예술인 가운데 계약직 일용직과 같은 계약형태는 76%나 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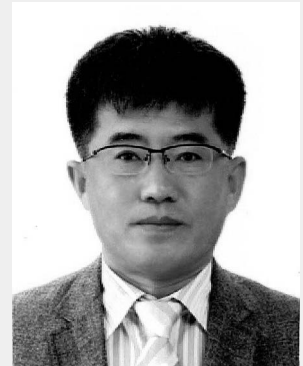
전체 70%의 평균 수익인 100만 원은 1인 기준 최저생계비인 170만 원에 한참 못 미친다. 코로나 19와 같은 사태에서 가장 취약한 직업군임을 말해주는 현상과 수치이다. 정부와 광주의 외면 속에 청년문화·예술인은 신음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광주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다시 돌아와 소통이다. 행정은 현장의 상황과 구조를 명확히 알 수 없다. 지난 3월 문체부가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 운송업·공연업 등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면서도 대기업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영화업을 배제한 것도 영화업 종사자들의 실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정책지원을 중앙정부가 실시한다면 지자체는 정부 정책의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차원의 정책으로 반영해야 국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19라는 큰 역경을 맞았지만 우리는 멋진 대처로 연일 외신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훌륭한 대처로 온 시민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청년들이 청년정책과 문화 정책 사이에서 외면받는 것이 아닌 양쪽 모두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을 순 없을까? 그렇게 광주의 미래는 초상집의 개처럼 오늘도 홀대받고 있다. 

시민들의 문화적 삶, 한계 극복을 위한 제언

고선주_ <광남일보> 문화특집부장



시민들의 문화적 삶은 늘 문제 아닌, 문제로 치부됐다. 문화 생산자와 소비자라고 하는 이분법적 구도로 재단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시민과 문화라고 하는 지점은 늘 대척점에 자리하고 있는 듯 생겼다.

시민은 대개 문화를 향유하고 소비하는 주체로서의 기능이 전제됐고, 문화는 특정 계층들이 양산해내는 유무형의 형태 혹은 가치 정도로 접근할 수 있겠다. 지극히 경제적으로 낙후된 시대, 문화는 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비계층 역시 특정층이 소통하고 향유하던 전유물 같은 것처럼 여겨졌다.

당장 먹고 살기 팍팍한데 공연을 보러 간다고 혼쭐난 기억을 갖고 사는 기성 세대들이 많을 것이다. 당시 문화라는 것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소수였고, 경제적 격차라고 하는, 삶의 정도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 해석되곤 했다.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문화는 균등하고, 공평하게 사회 공동체 안에서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 제1의 과제가 됐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문화적 삶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점점 무게감을 더해가고 있는 양상이다. 시민과 문화의 지점을 논할 때 이미 문화적 삶에 대한 논

의는 시작됐는지 모른다. 시민들은 문화적 욕구를 저마다 가지고 있다. 문화적 욕구를 발산하는 힘은 우선 소통과 향유, 적정한 소비로부터 작동된다. 그 문화적 욕구가 주체인 시민이 생산과 소비 어느 쪽에 서도 그것은 문화적 삶으로 규정된다. 확일적으로 문화적 삶이 소비 쪽이어야 한다는 것 역시 대단히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의 논의와는 별개로 향유하고 싶은 욕망을 충족해줄만한 문화작품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편차가 극명하다. 가령 광주시에서 공연과 전시가 가장 많이 이뤄진 문화시설 통계를 뒤져보다보니 시각 예술만 놓고 볼 경우 광주문예회관 10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3건, 유스퀘어문화관과 빛고을시민문화관, 전통문화관 0건 등으로 나타났고, 전통문화관은 양악이나 연극이 0건, 유스퀘어문화관은 무용이 0건으로 조사됐다. 물론 각기 공간적 특징이 있지만 이 통계치만 놓고 보면 지역 문화예술의 향유 여건이 고르게 분화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광주문화재단의 공연 관람객 추이(2018년 기준)에서 재미있는 결과를 대면할 수 있다. 월요콘서트 20

회 2,018명, 문화가 있는 날 열린 소극장 9회 954명, SAC on Screen 3회 1,062명, 우수공연 초청기획 4회 2,429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람형태가 큰 공연에 집중된 나머지 작은 공연들의 경우 분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담한 공연에 아담한 관람객이 든 것이다. 관람객이 분명 목적성과 타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인구 10만명당 장르별 전시건수를 보더라도 광역시 중 가장 많은 건수를 보여주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의 경우 관람객 2019년 기준 20만명을 돌파한 만큼 시민 7~8명당 1명이 시립미술관을 찾았다는 결론이 가능해진다.

과거 오프라인에서 문화적 욕구를 채워넣고, 갈증을 풀던 시대는 돈 많고, 시간많은 사람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유했지만 코로나 19 이후에는 먹통의 논리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냥 TV 보듯, 라디오 듣듯 하면 되니까 그렇다는 것이다. 대신 현장에 가서 소통해야만 얻을 수 있는 문화의 유무형적 트렌드의 실종은 감당해야 한다.

대개 여력이 안돼 전시장이나 공연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문화 향유에 관련한 질적 하락을 피할 수 없는 구조에 직면해야 했다.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고 한 것처럼 문화 역시 만민에 평등하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입장료가 비싼 전시나 공연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몫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한참 아랫 단계의 문화로 내려와 향유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오다 가다 접하는 문화를 말한다. 더욱이 KTX로 인해 수도권과 일일생활권이 되면서 원정 문화 나들이도 늘고 있다고 한다. 향유의 유불리를 떠나 서울 한 복판에서 벌어지는 문화 향유를 광주 사람들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의미다.

여기다 예총과 민예총, 그리고 생활 예총까지 등장한 마당이다. 문화를 노출하는 빈도수는 향후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 19가 완전 종식된다면 더더욱 그 빈도수는 현재에 비해 상당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관건은 문화적 계층이다. 문화적 계층은 확연하게 존재한다. 문화적 하층민들은 입장료라고 하는, 문턱이 없는 공간이나 작품을 쫓아다닐 수 밖에 없다. 사회정치 경제 등의 분야에 못지않게 문화에도 차별이 극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일 것이다. 문화분야에서는 굳이 이런 차별적 시선을 감추려는 흐름도 감지된다. 차별하면 사회분야의 문제일 것처럼 호도해서는 해결될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문화복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예술인들에게는 문화예술 시설을 출입할 때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그것이 완전한 형태의 복지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굉장히 한정적이다. 다만 그러한 개념의 복지 시스템 도입과 확대야말로 시민사회의 문화적 균등을 바로잡아가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최근 관람 사전 예약제와 객석 거리두기 등을 통해 코로나 19 이전으로 돌아가려 한다. 예를 들면 광주문예회관 및 시립예술단, 광주시립미술관은 5월 재개관과 공연 재개에 들어갔다. 30% 전후의 관객이나 관람객이 입실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입실까지 체온 측정, 손 소독약 바르기 등은 필수다.

이같은 재개관이 시민들의 문화적 삶에 획기적 기여를 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감염여파의 경중에 따라 병존이 강화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화의 복원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현장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다시 향유의 기회가 열린 셈이다.

시민들의 문화적 삶을 위한 접근이 전근대적 수치로 분할하는 것들보다는 향유의 개념을 스펙트럼처럼 다변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하고 획일적이며 일회적인 방향 제시만 반복된 채 근본적 대책은 강구되지 못할 것이다. 

문화인 탐구생활

꽃으로 피워내는 문화

— 꽃과 같은 꿈을 좇는 사람, 김미정 대표를 만나다

인터뷰어 이지호
인터뷰이 김미정

사람은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져요. 좋은 것을 보면 나누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축하할 일이 있거나 특별한 날이 되면 꽃을 건네는 행위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꽃이 하는 일을 저도 똑같이 하고 있고 또 누구라도 그런 일이 가능하답니다.



장미가 제 색을 뽐내기에 여념이 없는 5월의 어느 날, 인터뷰를 위해 재단의 한 위원님께 소개받은 꽃집을 찾아갔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의 쪽문 바로 앞에 위치한 꽃집은 인터뷰 내내 공연예술과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꽃집이라기보단 쉬어갈 만한 카페이자 힐링이 되는 정원이자 음악과 꽃이 어우러진 소통의 공간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다. 비탈길에 나무 한 그루를 끼고 있는 목재로 이루어진 야외 테라스와 그 옆에 소라형 계단을 중심으로 갖가지 소품들과 꽃들이 가득한 내부, 마치 톱과 허클베리 핀이 기지로 삼던 나무 위 오두막 같은 느낌이 들어 누구라도 아지트로 삼고 싶어할 만했다. 바깥으로 나와 맞이해주는 김미정 대표님의 첫인상은 말 그대로 꽃과 같은 미소였다. ‘꽃을 만지고 꽃과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든 저런 활짝 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표정이 환했다.



게발선인장꽃.

이지호(이하 이) 먼저 독자분들께 소개를 해주세요.

김미정(이하 김) 현재는 ‘꽃삽정원’을 운영하며 다양한 문화활동도 겸하고 있는 김미정이라고 해요. 그전에는 여러 가지 일을 했었어요. 유치원교사, 산림교육전문가, 생태체험 강사, 휘화장식 기사, 바리스타, 문화탐험대 등 활동을 했고 그 외 사진작가로도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어요. 사진 활동은 24살부터 시작했고 광주대학교 사진학과로 10년 전에 편입해서 공부했어요. 졸업한 후 사진을 전문적으로 했고 20년 넘게 하면서 야생화 사진을 오랫동안 찍으려 다녔습니다.

이 꽃집이 정말 예뻐서 찾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꽃집을 운영하게 되신 건가요?

김 꽃집을 하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줄 곧 꽃을 보러 다니거나 야생화 사진 찍으려 다니는 것이 취미였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시간이 여유로워서 뭘 할까 생각하던 중 마침 친구가 꽃가게를 운

영하고 있고 또 우연히 아시는 분이 가게를 내놓고 나서서 꽃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작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나이 먹을수록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이 꽃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알게 되었어요. 테이블이 또 하나뿐이니 서로 소개해주기도 하고 서로 얘기도 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특히 저희 가게는 저는 없어도 꽃과 음악과 차가 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공간을 아끼고 좋아하세요.

이 야생화를 꽤 오랫동안 찍으려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활동하게 되셨나요?

김 애들이 어릴 때 다음카페가 유행이었는데 엄마들은 집에만 있기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야생화 모임 카페에 가입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야생화



김미정 꽃샵 대표

를 보며 공부하는 모임에 들어가 활동을 했어요. 양손에 아이들 손을 잡고 똑딱이 카메라를 목에 건 채 돌아다녔어요. 카페 활동을 2년 정도 하다가 아는 선생님들과 같이 ‘전라도 우리 꽃 기행’이라는 모임을 결성했어요. 방송에도 몇 번 나왔어요. 내가 모임의 대표를 맡고 전라도에 있는 야생화를 보러 한 달에 한 번씩 탐사를 다녔어요. 점점 모임이 활성화되고 회원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물려가서 탐사를 하다 보니 자연 훼손 문제가 발생했죠. 그때부터 생태계를 위해서 많은 수가 물려다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후 규모를 다시 축소해서 다녔어요. 그렇게 20년째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해가고 있어요. 보통 동창회나 이런 친구들은 잘 안 만나게 돼요. 생각이나 가치관이 나와는 다르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 모임은 거의 20년 이상 꽃만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라 회비 없이도 잘 운영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갈등 한번 없이 유지가 되는 이유는 꽃이 만들어준 유대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습득하고 가르치는 활동들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신 건가요?

김 계획을 하진 않았어요. 그때그때 살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배웠어요. 바리스타 활동도 시누이 통해 커피기계를 얻는 바람에 시작

하게 됐어요. 숲 해설사도 아이들 교육에 도움 되게 가르치려고 공부를 시작했었어요. 숲에서 발견한 야생화를 하나하나 도감을 찾아가며 알아가는 그 재미가 습관이 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저는 그냥 알아가는 것 자체가 기쁘더라고요. 꽃을 점점 공부하다 보니까 꽃 하나를 안다는 것은 우주를 깨우치는 것과도 같다고 느꼈어요. 주변에 아는 소설가, 성직자, 화가분들도 시를 쓰거나 꽃을 그리거나 글이나 말로 꽃을 표현할 때 그 꽃을 정확히 알고 표현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의 차이가 커요. 단순히 꽃 한 송이가 아니라 그 한 송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범주가 달라지는 걸 느껴요.

이 전반적으로 꽃이나 식물과 함께해온 세월이 많은데 어떻게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건지 궁금하네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하다 보니 그렇게 살아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결혼하고 아이 둘을 키우는데 어디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처음엔 문화센터도 가서 도자기도 만들어보고 이것저것 해봤지만 아이들 교육에 가장 좋은 것이 꽃 공부였던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이어진 것 같아요. 산림교육이나 생태체험 강사도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죠. 지금 와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삼엽국화를 키우셨어요. 유치원 정도의 나이에 나보다 키가 큰 국화를 올려다보면서 처음으로 남다른 행복감을 느꼈어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이후로 들에 핀 진달래꽃만 봐도 기뻐서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그랬어요. 유년 시절의 그런 추억이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기 때문일까, 그 때문에 늘 꽃에 끌렸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이어져 온 꽃의 기억이 지금 제 자식에게도 이어져 가고 있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 딸이 지금 전남대 산림자원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산림자원학과면 꽃가게 와서 꽃도

팔아보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도통 오지를 않아요. 관심이 없어. 그런데 관심이 없다고 해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 잡고 보러 다닌 것들이 남아있는지 알기는 다 알아요. 과에서 과제를 내주면 다 알고 척척 해가더라고요. 워낙 어렸을 때 많이 데리고 다니기도 했고 언젠가는 딸도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도적으로 이쪽 분야로 유인을 하기는 했는데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속내를 잘 모르겠어요.

이 앞으로 사진작가 활동도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김 궁극적 목표는 무등산 사진집 **김 무등산**의 정보가 담겨 있는 책을 출판하고 싶어요. 올해 1월 1일 새벽 무등산 서석대에 설화가 꽃핀 날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 얘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더니 거기를 어떻게 혼자 올라갔다 와서 찍었냐고 정말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은 우리 가족들도 내가 몇 번 하다 말겠지 했어요. 무등산을 혼자 가본 적이 없는데 올 초부터 해서 스무 번 넘게 다녀왔어요. 아직 본격적으로 내가 자료를 만들겠다고 결심해 간 것은 아니고 예전엔 꽃만 보다가 지금은 사찰도 보고 불교 그림도 보고 시아가 좀 넓어졌어요.

단순히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역사 공부를 병행하니 더 재미가 있어요. 무등산을 세세하게 기록해놓은 책이 생각보다 없어요. 책을 보더라도 사진 자료가 없어서 ‘내가 찍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등산에 있는 문화유적 공부하면서 자료를 모집하는 중인데 글까지 쓰기엔 내가 어려워서 다른 글 쓰시는 분과 협업하려고 물어봤더니 생각의 차이가 좀 있어 멈춘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자료 수집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것을 두꺼운 책으로 엮어 보겠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해가고 있고 이 활동이 재밌어요. 일 년만 채우고 책 내야지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서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앞으로 더 하고 싶은 꽃을 통한 문화 활동이 있으신가요?

김 지금도 꽃집을 운영하면서 늘 하고 있기도 하고 계획 중인 것도 있어요. 사람과 자연과의 소통, 그 속에서 또 사람과 사람과의 교류, 그로 인한 행복을 만들어 가는 활동이요.

요즘은 혼밥, 혼술 이런 게 유행인 것처럼 쓰이기도 하지만 실은 유행이라기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서 외로움에 적응하기 위한 방식이 된 것 같아요. 실은 혼자 밥 먹는 게 문득 서럽게 느껴져서 울었다는 지인의 얘기를 듣고 한번은 밥 먹는 모임을 기획해서 진행해보게 됐어요. 예쁜 공간을 찾아 선정해두고 아침 일찍 모여 산책과 함께 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각자 출근하는 모임이었어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죠. 꽃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사람들이 깨닫는 시간도 됐고 무엇보다 아침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들 했어요. 앞으로도 이 내용을 가지고 프로젝트 형식으로 좀 더 기획해보고 진행해 볼 예정이에요. 함께 밥을 먹으니 말 그대로 식구(食口)가 되고, 그 사이에 식물에 대한 호기심이 서로를 넉쿨처럼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다 보면 자연스레 자연과 생명, 환경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차원이 돼가요.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 나로부터 이웃, 사회까지 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지금 제가 꽃으로 하고 싶은 일이에요.

이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꽃이나 식물이 있으신가요?

김 요즘 기능성 식물을 많이들 묻고 찾는데 효과는 거의 비슷해요. 그냥 식물과 꽃 이 자체가 사람과 지구에 좋은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많이 키우잖아요. 동물은 손이 많이 갈뿐더러 사람의 생활환경과 동물에게 필요한 환경을 비교하면



올해 1월 1일 정상에 올라가 찍은 설화가 핀 서석대.

좋은 주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욱이 요즘 세상에 동물을 키운다는 것이 환경적으로도 좋은 일은 아니긴 하죠. 더군다나 그 죽음은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꽃이 가진 생명력은 다른 차원의 것일까요. 빈방에 식물이 하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커요. 식물이 일상으로 들어오면 바뀌주는 기운과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져요. 물론 환경적으로도 좋고요. 사람의 건강에도 좋아요. 사람은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져요. 또 좋은 것을 보면 나누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아요. 그래서 축하할 일이 있거나 특별한 날이 되면 꽃을 건네는 행위가 생긴 것 같아요. 꽃이 하는 일을 저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또 꽃을 통해 누구나 같은 일이 가능하답니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일이 가장 즐거운 일이라고 하는 김미정 대표는 그 즐거운 미소만큼이나 품고 있는 꿈 또한 꽃과 닮아 있었다.

사람의 행복의 가치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좇는 것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다. 각자가 무언가를 향해 끊임없이 달음박질치는 현대 사회에서 꽃을 키우는 작은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의 가치와 기준을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인터뷰를 끝내고 자리를 뜨는 내게 김미정 대표는 분홍장미가 심어진 화분을 선물로 건넸다. 정말 신기하게도 꽃을 보고 있노라니 이 꽃을 전해 받을 사람의 얼굴과 표정이 떠오른다.

내 입가에도 미소가 번진다. ♪

달과 함께 산수에 노니는 풍류

— 장성 황룡강 요월정

임준성_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요월정(邀月亭)은 전남기념물 제70호이다.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에 따르면 조선중기 공조좌랑을 지낸 김경우(金景愚, 1517?~1559?)가 벼슬을 그만두고 산수와 벗하며 숨어지내기 위해 지었다고 한다. 당시 이곳에서는 이름난 선비들이 주변의 빼어난 경치를 배경으로 시를 읊고, 학문을 논하면서 누정 건립이 유행했다. 그런 까닭에 누정에는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 등 수많은 시인묵객들이 남겨놓은 시구(詩句)를 새긴 현판이 즐비하게 걸려 있다. 『장성읍지(長城邑誌)』에는 ‘황룡면은 광산김씨의 세거지이며, 김우급(金友汲, 1574~1643)이 태어난 곳으로 김경우의 요월정이 있다’고 적혀 있다. 이 두 가지 문헌기록은 장성 황룡면의 누정 요월정은 장성의 대표적인 누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왼쪽과 가운데칸은 방, 오른쪽은 마루로 이루어져 있다. 보통 가운데 칸을 마루로 하고 있는 것에 다른 형태를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요월정’이라 쓴 현판이 특이하게 왼쪽과 가운데에 두 점 걸려 있다. 가운데 현판은 홍두섭(洪斗燮)이 썼다고 한다.

김경우가 요월정을 지은 정확한 시기는 알기 어렵지



요월정 현판.

만 대략 1550년쯤으로 추측한다. 현재의 누정은 1925년 후손 영석과 원필이 중건한 것이다. 요월정은 ‘달을 맞이하다’는 뜻이다. 아마도 당나라 때 시인 이백(李白)의 「월하독작(月下獨酌)」 ‘잔 들어 달 맞이하고 舉杯邀明月/그림자와 함께 세 사람 이루었네 對影成三人’에서 취한 것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누정의 이름답게 뒷마루에 걸터 앉으면 달이 떠오르고 질 때까지 껌적을 감상하기 적합한 조망 위치에 있다. 또한 누정 앞

황룡강 수면 위로 달빛이 투영되는 등 여느 누정과는 달리 달에 최적화한 조영을 보여주고 있다.

요월정은 현판 2점, 시판 32점 등 34점의 편액과 시문을 갖고 있다. 현판 두 점은 처마에 걸쳐 있음에 비해 시판은 모두 방 안쪽에 걸려 있어 쉽게 구경할 수 없다.

「요월정기」는 1968년 김윤동이 지었다. 요월정이 자리한 곳은 수련산, 그 앞으로 흐르는 강이 황룡강이라는 위치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누정을 세운 이는 김경우이고, 그는 김인후와 기대승과 교유했다. 후손들이 선조를 사모하여 쇠락한 누정을 다시 일으켜 세웠으며, 요월정의 아름다운 경치는 조선후기 문곡 김수항(文谷 金壽恒, 1629~1689)과 삼연 김창흡(三淵 金昌翕, 1653~1722)과 같은 시인묵객들이 제

영시(題詠詩)를 남겼으며, 후손들의 정성에 감동받아 자신이 글을 짓는다고 하지만 그저 군더더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堂成酒熟客回車	누정 이루자 술 익고 손님도 오고
秉燭開筵樂有餘	촛불 잡고 자리 열었으니 즐겁구나
寒月漏雲光不定	차가운 달 구름에 새어나와 빛 희미하고
暝煙籠水色交虛	어두운 연기 물을 감싸니 색깔 비었구나
涓涓玉磴飛還數	옥술잔 졸졸 채워 몇 잔 날아오고



우화각 전경.

艷艷黃花笑自如 어여쁜 국화꽃 웃는 모습
자연스럽고나
乘興浩然迷遠近 흥취 일어 호연하여
원근을 잊었으니
却疑天地是蘆蘆 천지가 잠시 머물다 가는
여관인가 문득 의심했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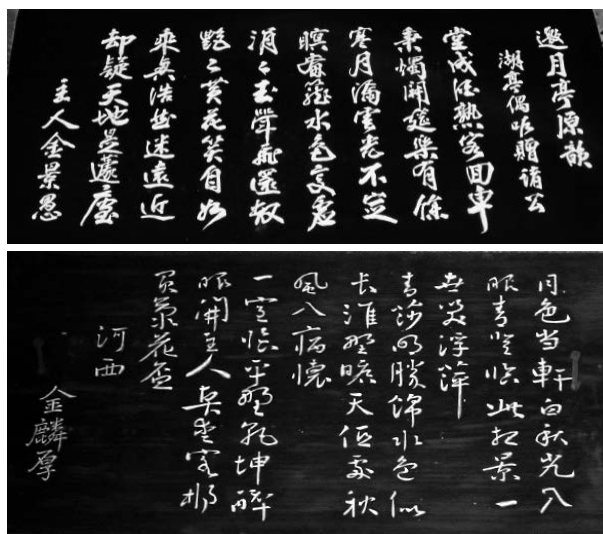
「요월정원운(邀月亭原韻)」이라 새긴 시판이다. 이 시를 보통 김경우가 쓴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 고봉 기대승(高峯 奇大升, 1527~1572)의 「호정에서 우연히 읊고 여러 사람에게 주다(湖亭偶吟贈諸公)」 첫째수이다. 이로 보면 기대승이 요월정을 제영으로 한 첫 시를 지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호정(湖亭)은 요월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누정을 세운 당시 처음에는 요월정이라 하지 않고 호정이라고 부른 듯하다. 김경우를 비롯한 여러 벗들이 모여 호정의 완성을 축하하는 잔치에서 지은 것이다. 가을밤 늦도록 달빛을 감상하며 술에 취해 흥취를 돋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月色當軒白 달빛이 마루에 희고
秋光入眼靑 가을달 눈에 비쳐 파랑네
登臨此夜景 누정에 올라 이 밤의 경치
一世笑浮萍 한 세상 부평초라 가소롭네

김인후의 「요월정(邀月亭)」이다. 1, 2구에서 요월정의 풍경을 묘사하고 3, 4구에서는 누정에서 밤경치를 보면서 이 세상이 마치 부평초처럼 뜬 구름같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落照千重練 지는 햇빛 천 겹 명주 펼친 듯
餘靄萬仞靑 남은 서리 만 길이나 푸르구나
爲來酬勝概 여기서 빼어난 경치 주고받으니
離舍付流萍 헤어지고 만남을 부평에 부치노라

송천 양응정(松川 梁應鼎, 1519~1581)의 「요월정(邀



위 요월정원운 아래 김인후의 시판

月亭)」으로 앞서 김인후의 시를 차운했다. 1구와 2구는 늦가을 저물녘 요월정의 주변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낙조’와 ‘여상’을 가을날의 이미지로 차용하여 스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지만 석양의 노을빛이 마치 비단명주를 천겹이나 펼친 듯한 아름답고 환상적인 분위기로 끌어내고 있다. 또한 서리가 내린 날에도 언제나 푸른 빛을 잃지 않고 늠름한 자태의 소나무에서 만고상청(萬古常靑)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좋고 멋진 풍경은 자연의 순환에 의한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인간 세상에서는 만나고 헤어짐에 따라 일희일비 하니 이제 바로 뜬 세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연의 흐름 앞에 의연해하는 시인의 자세가 엿보인다.

요월정은 장성을 대표하는 누정이다. 배롱나무와 소나무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명소이다. 앞으로는 황룡강이 유유히 흐르고, 그 물을 받아 옥토전답이 너른 들판처럼 퍼져 있는 원림이다. 김경우에 의해 세워지고, 그 후손들이 당대의 명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면면히 계승하고 있음을 32편의 시문을 기록한 현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ㄸ

마한역사문화권 설정의 당위성

임영진_ 전남대 문화인류고고학과 교수



2019년 4월 11일 민홍철 등 19인의 의원들이 발의하던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일부 수정을 거쳐 2020년 5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원안에는 이 법의 핵심을 이루는 고대문화권에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수정안에는 마한역사문화권과 탐라역사문화권이 포함됨으로써 우리 고대사회의 다양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사·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우리 고대사회는 고구려, 백제, 신라로 대표되는 삼국시대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그에 앞서 삼한사회가 있었다. 삼한은 마한 54국, 진한 12국, 변한 12국으로 구성되었던 역사적 실체이며 중국 『후한서』와 『삼국지』 등에 관련 기록이 있다.

삼한과 삼국은 시기적으로 선후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1:1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삼한 가운데 마한은 백제로, 진한은 신라로, 변한은 가야로 바뀌었으며 삼국 가운데 고구려는 삼한과 병행하면서 가장 먼저 국가 체제를 발전시켜 나갔다.

우리 고대사회는 크게 보아 삼한에서 삼국으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가야와 마한은 약간 다른 과정

을 거쳤다. 변한에서 출발한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공존하였지만 동일한 대접을 받지 못하였다. 중앙집권화된 통합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여러 소국으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마한은 기원전 3세기초 발해만 지역 고조선 주민의 이주가 계기가 되어 경기, 충청, 전라지역을 무대로 발전하다가 온조로 대표되는 고구려 이주민이 건국한 백제로 병합되어 나갔다.

1959년 이병도 박사는 『일본서기』를 토대로 전남지역 마지막 마한 제국들이 소멸된 시기를 4세기 중엽으로 보았지만 지금은 금동관을 비롯한 다양한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광주·전남지역이 6세기 초까지 독자적인 세력을 이루고 있었음이 입증되었다.

이 새로운 견해는 중국 「양직공도」를 통해 문헌자료로도 뒷받침됨으로써 이제는 우리 고대사회를 일괄해서 삼국시대라고 규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가야는 광주·전남지역 마지막 마한보다 30년쯤 뒤인 562년에 완전히 신라에 복속되었으므로 엄밀한 의미의 삼국시대는 562년에 시작되어 백제가 패망한 660년까지 100년 정도에 불과하다. 이미 학계에서는 가야가 존속하였던 562년까지를 삼국시대가 아니라 사국시대라 불러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 바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마지막 마한이 존속하였던 530년경까지는 오국시대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물론 가야나 마한이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구조를 가진 사회는 아니었지만 모든 국가가 동일한 구조를 가진 것은 아니다. 또한 탐라, 동예, 옥저 등도 상당기간 공존하였으니 이를 포괄하는 시대 명칭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고대사회가 삼국시대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1145년에 간행되었던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기인하는 것이다. ‘삼국’으로 표방되었던 우리 고대사 인식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지역 개발과 결부되어 있다. 우리 고대문화권이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으로 대별되어 국토교통부의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온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광주·전남지역은 ‘영산강고대문화권’ 혹은 ‘다도해문화권’ 등으로 반영되어 왔을 뿐 역사적 주체가 명시된 바 없다. 통설에 따라 백제에 속한다고 하면서도 백제문화권과는 구분되었기 때문에 다른 명칭을 쓴 것이다. 그러나 ‘영산강고대문화권’과 같은 명칭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한강고대문화권, 금강고대문화권, 낙동강고대문화권 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자명해진다. 역사적 주체가 명시되지 않은 고대문화권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최근 지역별 고대문화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특별법들이 발의된 바 있다. 이는 지역의 역사 규명과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7년 박인숙 의원 발의)처럼 유적 하나에 국한된 것도 있다.

전남지역을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2017년 윤영일 의원 발의)과 “마한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2019년 서삼석 의원 발의)에서 마한문화권으로 구분한 것, 5월 20일에 통과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나주 반남고분군 출토 5세기말~6세기초의 금동관과 금동상투관(금동관은 독립된 세력의 상징물임).

(수정안)”에 마한역사문화권이 포함된 것은 새로운 조사·연구 성과가 반영된 당연한 귀결이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수정안)”에는 마한역사문화권을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일대 마한시대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산강 유역’이 중심이되 ‘전남일대’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전남은 행정적으로 광주광역시와 구분되므로 ‘전남일대’는 ‘광주·전남일대’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한역사문화권이 포함된 특별법은 광주·전남지역 마한이 4세기 중엽 소멸한 이후 백제 변방에 불과하였다는 기존 인식을 불식시키고 530년경까지 독자적인 마한 사회가 이어지고 있었음을 반영한 것이므로 앞으로 주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2021년 5월 20일부터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토교통부의 국토종합개발계획,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개발 기본계획, 문화재청의 문화권유적종합정비계획 등에 반영되어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미 알려져 있는 마한 유적뿐만 아니라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유적들을 찾아내서 체계적인 조사와 성격 규명을 통해 국가 사적 등으로 지정해 나가는 한편 핵심적인 유적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ㄴ

코로나 시대의 오월정신

주 홍_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치유예술가



광주 민중항쟁 40주년이다. 민주광장과 금남로의 5·18전야제를 비롯한 거의 모든 행사가 취소됐다고 한다. 사람들이 모이면 전염병에 노출되기 때문에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론이다. 그러나 이 위기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는 없을까?

대한민국의 방역과 의료·행정력과 민주시민의식은 그동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행정력의 섬세한 배려다. 해외 입양아들을 찾아 마스크를 보내주거나, 대한민국이 어려웠을 때 은혜를 입은 국가에 먼저 의료용품을 지원하면서 인간다운 도리를 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우리민족이 경험하지 못한 높은 자존감까지 느끼게 한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대구를 중심으로 지역감염으로 확산되자, 전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대구로 향했다. 특히 광주·전남에서 가장 먼저 의료진과 물품들을 마을단위로 모아서 보내면서 연대의 정신을 실천했다. 우리민족은 위기가 닥치면 사재기를 하기보다 오히려 나누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는 문화가 뿌리 깊

게 자리 잡고 있다.

1980년 5월도 그랬다. 신군부의 총탄에 피 흘리며 쓰러지는 학생들을 그냥 두고 집으로 갈 수 없었다. 그래서 헌혈을 하며 피를 나누고 집에 있는 쌀로 주먹밥을 해서 시민군에게 보내며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질서정연하게 군부독재와 맞서 싸웠다. 인류역사에 유래가 없는 무정부 상태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한 광주시민정신, 우리는 1980년 5월, 10일간의 항쟁을 ‘대동세상’이라 부른다.

광주의 민주광장 분수대 주변에 빼곡하게 앉은 광주 시민들은 스스로 질서를 지켰고, 민주시민으로서 저항하며 자존을 지켰다. 엄혹한 군부독재시절에도 끝까지 진실 규명운동을 하며 1987년 6월 항쟁에 이르렀고, 직접선거로 민주적 정권이양이 가능한 시대를 열었다. 잔인한 국가폭력 앞에서 저항하며 민주주의의 역사의 새로운 문을 연, 5·18 광주정신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나눔과 연대로 대동세상을 만들어 낸다. 정말 기적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 있다.

코로나 19와 세계가 전쟁 중이다. 위기를 잘 대처하고 극복한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주목

5·18 광주정신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나눔과 연대로 대동세상을 만들어 낸다. 코로나 19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오월정신의 힘으로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광주 민주광장을 각자의 예술적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이다. 그리고 타이밍이다. 올해 5월은 광주정신을 세계로 알리며 미래를 이끄는 햇불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받고 있을 때 5·18 40주년을 맞아 나는 새로운 방식의 전시회를 꿈꾼다.

‘100인의 오월정신 릴레이아트’는 2014년부터 오월정신을 현재화시키는 시사적인 주제로 민주광장에서 100명의 화가, 만화가, 그림책 작가들이 모여 걸개그림을 그리는 행사를 6회째 진행해 왔다. 타 지역에서 오는 작가들은 1박 2일 동안 민주광장과 금남로에 머물며 작업하고 광주시민들을 만나고 오월정신에 감동하며 걸개그림 한 점씩을 광주에 남기고 돌아갔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모든 5·18행사가 취소되자, ‘100인의 오월정신 릴레이아트’도 취소하게 됐다.

하지만 분수대가 있는 오프라인 광주의 민주광장에서만 걸개그림을 그려야 할까?

오히려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각지에 살고 있는 작가들에게 당신의 민주광장에서 ‘코로나 19 시대의 오월정신’을 주제로 천위에 그림을 그려서 우편으로 받아서 전시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작가가 그리는 장면 한 컷과 완성된 작품 한 컷을 찍어서 보내온 사진이나 영상으로 온라인 전시회를 하는 것도 새로운 방식의 전시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광주 민주광장을 전 세계의

작가의 작업실이나 거실, 앞마당 등으로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사회적 거리를 두고 5·18주간에 세계 각지에 있는 작가들이 같은 크기의 천에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오월정신을 생각하며 그림을 그리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상상만으로도 즐겁다. 이런 발상의 전환을 광주시 행정에서 받아줄 수 있을까?

5·18 40주년, 2020년 5월이 시작됐다. 코로나 19로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주목하고 있는 세계전쟁 같은 코로나 19의 시절에, 광주시는 대동세상으로 상징되는 5·18의 정신이야말로 광주의 브랜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재기가 아니라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예술로 보여주며 오히려 전 세계의 작가들과 함께 40주년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이다. 그리고 타이밍이다. 올해 5월은 광주정신을 세계로 알리며 미래를 이끄는 햇불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 글이 광주시의 깨어있는 공무원의 마음과 몸을 움직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詩)와 꽃잎과 목마른 기다림

— 제4회 운천호수(西湖) 시화전 스케치

김정희_ 시인, 광주문인협회 상임 부회장



...누구는 풀섶에 숨는 붕어가 되고/누구는 폭포
오르는 잉어가 되는 세상

운천호 예쁜 볼에 이름 하나 올리노라/하늘에 용
오르라고 이름 하나 올리노라//중국 항주 덮어 누를
이름 하나 올리노라/애첩같은 명패 하나 西湖를 올
리노라...

— 김중 詩人の「운천호에서 西湖를 낚다」中에서

‘호수’라는 이름을 가만히 부르면 ‘땅이 우묵하게 파
여 못이나 늪보다 깊고 넓게 물이 괴어 있는 곳’이란
지리적 설명은 짧게 스치고 ‘보고픈 마음’과 ‘비로소 만
나야 할 사람’이 떠오른다. 호수에 서면 누구나 시인이
되고 싶은 감각이 푸른 비늘처럼 깨어난다. 도심의 빠
르고 답답한 속박의 시계에서 ‘멈춤’과 ‘비움’을 가능케
하는 곳이 근교의 호수 공원인 것 같다. 눈꽃처럼 우
수수 흩어지는 꽃잎을 피하듯 새들이 자신의 발자국을
지우며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곳—서호(운천호), 목교
의 난간마다 강호(?)의 시인들이 가슴으로 적은 시화
가 손짓을 하는 ‘제4회 서호 시화전’에 다녀왔다.

광주 서구 운천 저수지는 1951년 마록동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재해방지를 위해 축조된 곳이지
만 주변의 대규모 택지개발(금호, 상무지구)로 도심에
위치하게 되고, 한때 상류수원 고갈과 오폐수가 유입
되어 악취와 해충 서식 등으로 각종 민원이 유발되던
곳이었다. 이후 ‘95년 연차별 사업추진으로 하수와 오
폐수 유입을 차단하고 맑은 물을 공급한 결과 현재는
자정능력이 회복되어 각종 조류가 날아드는 자연생태
공원으로 변모되고 있다. 특히 봄날 환상처럼 날리는
벚꽃과 여름 한철 즈 많은 햇살에 일렁이는 연꽃의 신
비한 색채, 산책로를 겸한 둥글고 긴 목조 다리의 풍경
은 어느 호수 공원보다 정답고 평화롭다. 특히 밤이면
주변의 아파트 단지 불빛이나 이국적 카페, 음식점의
형광색 간판이 물 위에서 데칼코마니처럼 아름다운 그
림으로 빛난다.

하지만 올해 서호(운천호)의 봄은 신의 한수처럼 매
직같이 늘어나는 벚꽃 풍경을 코로나 19로 자유를 만
끽하지 못하고 서로의 간격을 저만큼 두고 걸거나 멈
추어야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엇보다 엄중하던
시기와 겹친 탓이다. 이 운천 호수는 10여 년 전부터



몇몇 뜻있는 문화 예술인들이 ‘운천호’라는 지명을 따른 평이한 이름 보다 광주의 서쪽에 있고 중국 항주의 서호 보다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곳으로 가꾸자는 의지를 담아 ‘서호(西湖)’로 명명하고 돌 표지석에 ‘서호(西湖)’로 이름을 새겨 두었다. ‘서호’라는 이름은 중국에 36개 그리고 국내와 일본 등에도 2개 이상이 있다고 한다.(한중문화 교류회 강원구 박사의 설명) 사실이 호수는 농업용수를 가두어 두던 곳으로 이름이 따로 있지 않고 행정상 명칭은 그냥 공원지구일 뿐이라고 한다. 이 호수에 ‘서호’라는 애칭 같은 이름을 붙여 줄 수 있는 예술인들이 모여 사는 곳, 광주는 그래서 ‘예향’이 아닐까.

지역 문인들은 2017년 운천호를 ‘서호’로 새로이 명명하면서 이곳을 국내의 어떤 문학 공원 보다 아름다운 광주의 랜드마크 문학 공원으로 가꾸자는 열망을 담아 매년 시화전을 개최하며 하나씩 디딤돌을 놓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 개최된 ‘제4회 서호 시화전’은 광주 문인협회(회장 탁인석)가 주관하고 광주시인협회, 전남 문인협회, 한중문화교류회, 한실문예창작 교실

등 광주 전남의 문학단체 소속 문학인들이 500여 명 이상 대거 참여했다. 코로나로 지치고 쓸쓸해 하는 시민들의 마음에 서호 시화전은 영혼의 안식처 같은 장소가 되었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아득한 섬에 갇힌 것 같은 유예의 시간, 어떤 ‘토닥토닥’이 이보다 더 깊고 부드러운 위안이 될 수 있을까. 구름의 방향으로 천천히 걸으며 한 편 한 편 시를 읊조리는 여유, ‘팬살에 비단을 걸쳐도 아플 것’이라는 봄날에 청춘의 느낌으로 시를 찾아 떠나는 걸음이 마냥 싱그럽다.

서호 시화전은 행사가 거듭 될수록 규모도 커지고 의미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2017년 첫 행사는 한중문화교류중앙회(회장 강원구)에서 단독으로 개최했다. 2회와 3회를 거치면서 광주시인협회(회장 김석문)와 전남문인협회(회장 김용국)가 공동 주최하며 많은 시인과 작가들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광주문인협회(회장 탁인석)가 주관하여 지역 문인들이 경계를 지우고 다 함께 참여하는 대표적인 봄철 행사로 자리 잡았다. 어떤 행사이건 큰 명예나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추진하는 이들의 수고가 있



어 완성 되는 것 같다. 이 호수 시화전 역시 처음 시작 할 때는 한중문화교류회 강원구 회장과 광주시인협회 김석문 회장의 지치지 않는 열정이 밑거름이 되었다.

500여 점의 대규모 야외 시화전은 물리적 숫자로도 기록 될 만한 큰 행사다. 비록 코로나로 잠시 목교의 산책로가 폐쇄되어 주변을 맴도는 관람이 되기도 했지만 5월 초부터 다리 안쪽의 산책로를 걸으며 난간의 시화를 읽을 수 있게 됐다. 벚꽃 망울이 터지던 3월 28일부터 시작해 지난 5월 말까지 약 두 달 동안 연분홍 꽃비가 내리는 호수 공원의 산책길을 다녀간 관람객들은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다. 사회적 우울이 깊어가는 시기에 시화전이라는 낭만적인 문학 잔치마당에서 주렁주렁 매달린 시나무를 마음에 옮겨 심고 위안을 얻은 탓이다. 언젠가 이 데크의 시화를 읽으며 걸어간 산

책자의 시나무들은 숲을 이루고 우리의 산하 어디서든 열매 맺지 않을까.

이 매머드급 ‘서호 시화전’이 거듭되면 머잖아 이곳은 전국적 예술 명소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거리의 스트리트퍼니처처럼 ‘서호’에는 두 개의 작은 섬과 ‘호심정’, ‘경림정’, ‘망호정’ 세 곳의 정자가 산책로 숲 사이에 그윽하고 편안한 풍경을 이루고 있다. 시화전을 관람하러온 대금 명인이 시화 옆에서 즉석 연주를 펼치자 바람을 머물러처럼 두른 나무들이 연신 허리를 굽신거린다. 어쩌면 우리가 저 호수에 작은 목선을 띄우고 허공을 쓸며 지는 꽃잎을 보게 될까. 그때 시와 봄날은 이곳에서 더 오래 머물다 갈 것 같다. ♪

꽃이 진다, 사진처럼

보일 듯 아닌 듯/바람이 불어오고/꽃잎이 날린다/사진처럼//

떨어져 누운 꽃잎을/밤이면 보석으로 닦는 별
새들은 돌아와/오래 오래 이곳을 살다
발자국 지우고 사라진다//

꽃그늘 여럿/눈이 부시게 흩어지는데/새들은 좋은 풍경을 가슴에 담고
찍을 찾아 날아갔다//

그렇게 봄날 호수는/ 꽃빛이 전부이듯
다시 시 같은 봄날이 오고 /내 생각의 전부는
정직한 시로 물들었다//

물위의 건반을 두드리며/꽃잎은 떨어지고
나는 아직 사진 속/봄을 만지고 있다 //

- 2020. 제4회 서호 시화전 출품한 필자의 시

전일빌딩 245, 문화콘텐츠로 다시 태어나다

박홍근_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어느 도시를 오랜만에 방문해도 변하지 않는 장소는 특별한 인상을 준다. 이런 장소는 아련한 추억과 오래된 기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은 그런 배경이 된다. 전일빌딩이 그렇다. 한 자리에서 52년을 ‘전일’이란 이름으로 있다가 지난 5월 11일 ‘전일빌딩 245’로 다시 태어났다.

대지면적은 2,778㎡이며, 연 면적 19,243㎡다.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다. 1968년 7층 건물로 준공된 이후 1970년 2차, 1974년 3차, 1980년 4차 증축 과정을 거쳐 현재의 규모가 되었다. 잦은 증축과 노후화, 경영

상 어려움 등이 겹치면서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는 아픔도 겪었다.

오랜 기간 광주를 상징하던 건물인 전일빌딩은 2011년 경매시장에 나왔다. 건물주인 전일실업이 전일빌딩을 담보로 빌린 15억 원을 갚지 못해, 2010년 5월 초 광주지법에 경매 개시를 신청을 당했다. 2011년 8월에 광주도시공사는 광주광역시의 요청에 따라 전일빌딩을 낙찰받아 주인이 되었다. 아시아문화전당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부지 협소 문제로 무산되었고, 이후 전일빌딩의 활용방안은 다 각도로 모색되



무등산과 옛 도청 전경.



전일빌딩245.

었다.

2016년 리모델링 사업은 시작되었고, 설계 진행 중 자문 과정에서 총탄 흔적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를 간과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요청, 4차례 조사로 10층 내부와 외벽에서 245개의 총탄 흔적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조례’에 근거해 역사적인 장소인 전일빌딩을 ‘5·18민주화운동 사적’ 제28호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일부 철거(1차 공사분 철거 예정)계획이 포함된 설계용역은 전면 중단되었다. 5·18 사적 지정으로 전일빌딩의 리모델링 사업도 방향을 틀었다. 원형보존 방향으로 시행방침이 변경되었고, 헬기 사격의 흔적은 남기고 광주의 상징과 5·18 역사를 담은 복합문화공간으로 가닥을 잡았다.

2018년 2월부터 전체 원형보존을 전제로 설계가 다시 진행되었고, 2019년 2월 기공식을 거쳐 2020년 5월에 개관하게 되었다. 공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난 2월에는 헬기 사격으로 인한 총탄 흔적이 추가 발견되기도 했다.

전일빌딩이 새롭게 태어났다. 그 평가는 다양할 것이다.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에 2018년 1월부터 개관 때까지 자문위원, 총괄 코디네이터로 참여하면서 생각했던 기본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과 확장이다. 점으로 있는 전일빌딩, 넓은 길인 금남로의 보행길을 필로티와 내부로 연결하고, 확장하여 입체적 동선 체계를 만든다. 1층을 최대한 개방하고, 길을 연결한다. 건물 내 길은 각층으로 확장한다. 누구나 거닐 수 있는 길은 옥상까지 이어지게 한다. 길의 건축화, 건축 내 길의 구축, 건축물 내부에 골목길의 정취와 기능을 개념적으로 재조직한다.

둘째 옥상은 공공재다. 옥상은 제5의 입면이라고도 한다. 옥상을 입면으로 볼 수 있는 곳은 더 높은 옥상에 올라가야만 가능하다. 빌딩 숲에서 확 트인 하늘을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도심에서 광주를 품은 무등산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민주광장과 멋지게 꾸며진 문화전당 옥상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가슴을 펴고 광주 근현대사의 역사를 되돌아볼 장소 또한 어디인가? 전일빌딩 옥상이다. 옥

상은 도시민들에게 삶의 공간이다. 모두의 카렌시아(Querencia)다. 도심 허파 역할을 해야 할 곳이다. 특히 공공건물의 옥상은 공공재 이어야 한다.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셋째, 공간은 문화콘텐츠다. 건축공간은 단순히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공간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이며, 삶의 배경이며, 문화 그 자체여야 한다. 공간은 이야기가 있어 역사가 되며, 현재 우리 삶을 규정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개방된 로비는 물론 각 층의 공간들은 단순 칸막이로 구획된 곳이 아니라 삶의 문화를 담는 그릇이고, 문화콘텐츠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기본으로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을 바라보고 참여했다. 얼마나 녹아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어떻게 사용될지는 시간의 흐름 속 이용자의 몫이 될 것이다.

‘전일빌딩245’의 용도는 다양하게 구축되었다. 광주콘텐츠허브가 자리 잡은 5층, 6층, 7층을 제외한 모든 공간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구역이다. 1층엔 전일빌딩의 역사가 전시된 전일아카이브와 천정에 설치된 미디어 작품인 캔버스245 등이 있고, 로비 겸 휴게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2층엔 광주와 전남의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남도관광센터와 디지털정보도서관, 아트마켓 등이 있다. 3층엔 2층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디지털정보도서관이 있고, 시민갤러리, 5·18과 언론 전시관이 있다. 4층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일생활문화센터와 NGO센터, 중소 회의실이 있다. 8층은 카페와 다목적 강당, 굴뚝정원이 있으며 이곳부터 최상층 옥상까지 옥외 전망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다. 전망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광주의 멋진 풍경들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총탄 흔적을 품고 있는 10층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9층은 복층형의 19800518 전시홀로 꾸며졌다. 최상부 옥상은 전망데크, 휴게데크, 타이포 조형물, 스탠드 등 시설이 있어 휴식과 함께 사진을 찍기에 좋고 광주 도심을 파노라마 뷰로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전일빌딩245’는 광주광역시와 광주도시공사의 합작품이다. 공공건물의 재생이 이 정도나마 가능했던 이유를 생각해본다. 우선 행정의 눈높이가 달랐고 운(運)도 있었다. 광주에서 가장 소중한 역사적 사건의 배경에 늘 함께했던 전일빌딩, 개인(법인)소유 건물을 공공이 매입했다는 점이다. 처음 목적은 헐고 주차장과 공원을 지으려는 의도였다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 또한 다행이었다. 만약 민간기업이 구입했다면 이미 다른 용도로 새 건물이 들어섰을 것이다. 행정의 눈높이가 높았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 좋은 선택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운도 따랐다고 본다.

다음은 실무자들의 열정이 있었다. 공무원들은 최고 엘리트 집단 중 하나다. 그런데 조직원이 되는 순간 다수가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사무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봤다. 이번은 달랐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적극적, 개방적, 사명감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 줬다. 건축과 문화 분야 실무자들이 창의적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여 필요기능을 수용하면서도, 공간을 문화콘텐츠화 하는데 함께 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은 집단지성이 있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담당자라면 잔소리하는 시어머니(?) 같은 조직이나 사람을 많이 두길 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자문회의, TF팀 운영, 실무자 회의 등 수많은 미팅을 했으며, 필자를 총괄 코디네이터로 두어 함께 하였다. 집단지성을 모았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논의를 통해 필터링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했다. 그 결과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유사 프로젝트는 많을 것이다. 가치 있는 곳을 찾아 공공기관이 매입하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준비하여, 의미 있게 다듬었으면 한다. 과거의 유산을, 현재의 우리가 향유 하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으로 남겨야 한다. 그런 장소와 공간이 많아질수록 살고 싶은 도시가 된다. 

어떤 일을 도모합니다, 없던 일을 도모합니다

이하영_ 독립큐레이터팀 장동컬렉티브



독립큐레이터팀 장동컬렉티브의 시작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이제 뭐 할 거야?’라는 질문이 인사말이 될 무렵, 소진이와 저는 평소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장동에 위치한 술집에서였습니다. ‘이제 진짜 뭐 하지?’ 늘 하던 걱정을 반복했습니다. 이야기 주제는 어느새 서로가 꿈꾸는 세상의 모습으로 흘러갔습니다. 문득 우리 둘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감이 왔습니다.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진 우리가 함께 일을 벌인다면 꿈꾸는 세상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람들을 행동하게 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술의 힘을 믿었습니다. 예술을 통해 공유하고자 하는 가치가 같았고, 재미를 동력으로 자유롭게 일하길 꿈꾸고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 노트에 적어둔 아이디어, 막연히 꿈꾸던 일들을 손에 잡히는 무언가로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돈 생각하지 말고 2년만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라는 말을 시작으로 독립큐레이터팀 장동컬렉티브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큐레이터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데?

‘독립큐레이터팀 장동컬렉티브입니다’라고 저희를

소개하고 나면 주로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큐레이터가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사전에서는 큐레이터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저희는 큐레이터를 온갖 일을 다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술작품을 통해 주제를 선정하고, 작가와 작품을 조사하고, 공간을 섭외합니다. 작품의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한 글을 작성하고, 전시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후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고, 작품을 활용한 상품들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림을 벽에 걸기 위해 못질을 하고, SNS 계정을 홍보하고, 포스터를 붙이러 다니는 일도 맡고 있습니다. 전시를 한 번 선보일 때마다 ‘혼자 했으면 못했을 일’이라고 말하며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면 독립큐레이터팀 장동컬렉티브는 무슨 일을 하는 데?

이처럼 온갖 일을 하는 저희가 ‘돈 생각하지 않고’ 작년부터 해온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5월, 진월동에 위치한 갤러리에서 새롭게 등장한 세대의 소통 방식을 이야기한 전시 〈MZ 치타텔레: 청춘의 소통법〉



〈분노 이후를 상상하기〉 전시 준비.

을 시작으로 세 차례의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첫 번째 전시가 90년대생들이 목소리를 내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두 번째 전시는 이들이 함께하는 법을 이야기하고 싶어 ‘연대’를 주제로 〈앞만보고 걸어가는 우린 불나비〉라는 제목의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두 차례 전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봄에는 90년대생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전시 〈This Is Our Greenplace: 분노 이후를 상상하기展〉을 개최했습니다. 또래 여성들의 분노 이유가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분노에 함몰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전시를 만들어보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지역의 또래 작가들과 함께하는 작업을 주로 해왔습니다. ‘왜 ‘신진작가’, ‘청년작가’는 이야기되면서 젊은 큐레이터는 언급되지 않을까? 젊은 작가들과 함께 성장하는 젊은 큐레이터는 없을까?’하는 고민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래 작가들을 만나고 함께 성장하고 싶어 광주 청년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체적으로 소개하는 프로젝트 〈YoungArtistStory YAS! 광주〉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에 대한 고민이 담긴 프로젝트 〈오월 식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0년 오월을 겪으신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일상의 음식에 담아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입니다. 사건의 잔혹함에 집중하기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뤄낸 경이롭고 숭고한 일이었음을 상기시키며 밥 먹듯이 일상에서 광주의 오월을 기억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도모합니다, 없던 일을 도모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도모해온 어떤 일들입니다. 예술을 매개로 다양한 사회·문화 이슈를 풀어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술의 힘을 실감했고,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재네가 언제까지 갈까?’ 궁금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와 소진이가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게 되는 날 저희의 활동도 끝나지 않을까요? 하지만 둘 다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남아서 그런 날이 오거나 할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없던 일들을 도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토록 선명한 즐거움

— 땡땡이 시집 『나 개 있음에 감사하오』*를 읽고

김원경_ 공통점 기획위원



나는 개와 함께 사는 인간이다. 그리고 이견 개와 함께 살아본 인간으로서 밝히는 비밀인데, 개와 사는 인간에게는 보통의 인간에게는 없는 능력이 하나 있다. 불길함을 감지하는 능력 말이다. 집안에 적막이 맴돌 때면 일단 큰 소리로 “안돼!” 하고 외친다. 그러면 개가 사고를 치다 말고 헐레벌떡 뛰어온다. 보통 내 물건을 가져가 잘근잘근 씹거나 쓰레기통을 뒤지다 만 채이다. 나는 잔해를 치우고는 개를 혼내지 않고 둔다. 개가 벌이는 모든 사고는 인간의 탓이므로.

나와 사는 개는 불일이 급할 때면 인간에게 산책을 재촉한다. 발을 다친 기억 때문에 발을 만지면 맹수로 변한다. 마음에 드는 물건은 안방 침대 밑 구석에 숨겨 둔다. 식사 시간에 무시하면 보채지만, 의자 하나를 내어주면 얄전히 앉아 식사를 지켜본다. 인간들이 모두 잠들기 전까지 졸음을 참으며 인간들의 대화에도 참여한다. 맨 처음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투성이였던 나의 개는, 오 년 사이에 내게 이렇게나 뻔하고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 책의 장을 넘길 때마다 자주 무너졌다가 일어섰다. 한 장을 읽으면 눈물이 흘렀는데 다음 장을 읽다 보면 눈물이 말랐다. 주의를 기울여 읽어 보려고 들었던 연필로는 단 한 줄의 밑줄도 긋지 않았다. 좋아하는 문장마다 줄을 긋는다면 책을 읽는 내내 줄 긋기를 해야 할 것이므로. 시와 개라니, 시인들의 개에 대한 이야기라니. 책을 덮고 나서는 글을 적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원래 정말 좋은 것은 나 혼자만 보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므로.

나는 그런 사람이다. 좋은 것을 나 혼자만 차지하고 싶은 사람. 그러나 개에 대해서라면 조금 다르다. 집안에선 오줌을 누지 않는 내 개가 불룩해진 아랫배로 나를 깨우는 아침이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다 개가 문을 긁는 소리에 마음이 다급해져 틀린 번호를 누르고 말 때처럼. 나 아닌 다른 존재가 나보다 우선이 되는 마음과 순간이 내게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다.

『나 개 있음에 감사하오』는 ‘개에게 입은 은혜 무수’한 시인 스무 명이 모여 각자 시 두 편과 개에 대해 쓴 짧은 이야기를 모아 엮은 책이다. 유계영 시인은 ‘개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여는 글을 썼다. 때로

* 이 도서의 수익금 일부는 관련 단체에 기부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쓰인다고 한다.

개는 너무 천진하고, 시는 너무 심각한 것 같지만 그들은 종종 서로를 닮는다. ‘시인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고, 시는 시가 아닌 방향으로 달려가고 싶어 하므로, 그건 개도 마찬가지이므로.’(p. 5)

개와 함께한 시간 동안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 것이 맞다면 나는 이번 생이 아주 마음에 든다. 그러므로 언젠가 겪어야 할 슬픔이나 어떤 고통의 순간을 감내하고서라도 나는 이번 생을 힘껏 살아가 볼 자신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짚을 수 없을 만큼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잔뜩 받았으므로.

그런데 이런 마음은 스무 명의 시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나 개 있음에 감사하오』를 읽는 내내 개와 만난 기억, 개와 함께한 추억, 개를 떠나보내야 했던 무너짐의 순간……, 그러니까 개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시가 되어 차곡차곡 모인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개의 시인들’이 옮겨놓은 시간의 생생함 때문에, 나는 순식간에 그 시간을 살다 나온 것만 같다. 스무 마리가 넘는 개들과 함께 자라고, 잠자리의 편안한 자리를 내어주고, 음식을 조금 떼어 몰래 식탁 밑으로 내밀어도 보고, 막 돌아나온 풀 냄새를 맡고, 달리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따끈한 물에 개를 씻긴 뒤 그 모든 시간을 되새겨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일랄까.

이는 『나 개 있음에 감사하오』에 실린 이야기가 여느 개와 인간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이 개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밥을 챙겨주는 것, 대소변을 치워주는 것, 산책을 가는 것, 함께 잠드는 것, 혹은 망가진 물건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눈을 맞추며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방황하는 일쯤일 것이다. 그런 일상을 반복하며 살다 보면 개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하고 떠나가는 순간이 온다. 그리고 인간은 다시 만날 날을 믿으며 그 모든 기억을 조약돌처럼 동그랗게 품고 산다.

개 있음에, 개 있었음에 감사한 인간들. 개를 떠나보내고 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에게서 부재하는

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인간들의 마음. 서운후 시인은 그 마음에 대해 ‘사랑은 때때로 아주 숭고하고 뒷모습은 고약하다.’고 썼다.(p. 83) 이런 예측 가능한 이야기가 담긴 시와 글들을, 나는 어쩌서 눈물까지 흘려가

며 읽었는지. 오랜 세월을 두고 반복되는 서사의 원형처럼, 시간과 죽음의 굴레 안에서 맴도는 개와 인간의 만남과 이별에 대한 감각이 ‘개와 사는 나’의 안에도 잠들어있기 때문은 아닐까.

개와 함께 사는 일이 문득 두려워질 때가 있다. 산책 후 집에 들어갈 때면 개를 내 품에 안고 있으면서도 이 문을 열면 저쪽에서 개가 꼬리를 흔들며 나를 반기려 나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일상이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종종 두려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유계영 시인의 「우리는 슬픔 말고 맛과 사랑과 유머」를 생각하며 쓸데없는 두려움은 거두기로 한다. 다가오지 않은 슬픔의 실루엣보다는 지금 내 눈앞의 즐거움이 훨씬 선명하므로. 훗날의 슬픔보다는 지금의 즐거움. 아마도 ‘개가 공을 던져주길 원하는 방향은 아마 이곳이었을 것이다’(p. 140)

덧붙여. 심바, 너와 살면서 개들에게도 표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즐거움, 두려움, 분노, 억울함, 피로함, 지루함……. 가져본 적 없는 꼬리의 흔들림을 상상해보면, 나는 아무 계산 없이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구나. 고개를 돌리면 항상 저기에 있는, 네가 나를 보고 있다. 너를 쓰다듬으며 배운다. 이 사랑이 얼마나 무해한지를. 그리고 이 순간이 얼마나 눈부신지를. ♪



코로나로 인해 발전하는 언택트(Untact)

- 비대면 문화, 그 문화를 주도하고 변화를 꾀하는 청년들

이영재_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청년인턴



대학교 후문으로 일제히 학생들이 집합하는 점심시간이었다. 은행장님이 직접 나와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홍보하던 모습이 인상 깊었다. 이제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챗봇’ 고객 응대서비스 뿐만 아니라 배달 주문, 오프라인 매장의 무인결제기(키오스크) 등으로 대면시간을 단축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며 사람 대신 기계가 자리를 대신하는 풍경이다. 이렇게 언택트 사회로 점점 변화해가고 있는 상태였지만 코로나 19라는 재난상황으로 전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

1인 가구 급증, 인간관계의 피로도가 높아 불필요한 대면을 피하려는 심리로 인한 혼밥, 혼술, 혼여 등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은 코로나 이후 언택트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여행, 책, 맛집 등을 주제로 한 소규모 대화형식의 TV 프로그램과 유튜브와 개인 방송을 자주 접하는 청년층은 소수가 모인 오프라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통된 관심사로 대화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최근 집콕 장기화로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원하는 대로 상품을 개발해 먹는 모디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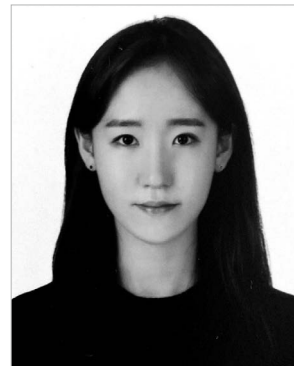
머 트렌드에 맞춰 추억의 군것질 거리인 달고나를 커피와 조합했다는 점에서 뉴트로(복고) 감성까지 채울 수 있었다.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각자의 취미생활, 자기계발을 유튜브와 브이로그 영상을 통해 타인과 공유하고 놀이 문화로 만들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다.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교육, 스포츠, 예술, 의료 등 감정 교류가 필요한 분야에서도 언택트는 확산될 것이다. 노년층의 디지털 환경 소외감, 외로움, 소통 단절, 편협한 사고를 지양하며 한국 고유의 문화인 ‘정’이 사라지지 않도록 연대와 공감의 필요하다. 컨택트와 언컨택트의 장점만 취해 세대간 소통하며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데 청년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네 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 답사기

최지화_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청년인턴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에서 주관하는 네 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 ‘5·18사적지 공감투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5·18민중항쟁 40주년을 맞이하여 아직 5·18 역사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사적지를 돌아다니며 그때의 광주정신을 되짚어보고 그들의 희생과 절대적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회고할 수 있는 아주 뜻 깊은 시간이었다.

첫 번째 사적지는 화순 너릿재와 주남마을 인근 양민 학살지이다. 무장한 계엄군들이 비무장 민간인들에게 무차별적 총격을 가하고 주남마을 뒷산으로 끌고 가 매장시켰던 곳이다. 주남마을 뒷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며 김향득 작가님께서 그 당시 이곳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에 대하여 말씀해주셨다. 시민에게 시신을 신계하고 뒷산까지 끌고 간 뒤 살아있는 시민마저도 사살하여 매장하였다고... 주남마을 뒷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는 한걸음 한걸음이 무겁게만 느껴졌고 그들은 무슨 이유로 무참히 매장당해야만 했는지와 같은 국민으로서, 사람으로서 믿기지 않는 잔혹함에 말을 잃었다.

두 번째 사적지는 광주대학교 안에 위치한 최초의 민중항쟁 탑이다. 탑과 함께 공수부대와 맞서 싸우며 항거하는 시민상이 세워져있다. 부상자를 부축하며 무

차별 유혈 진압에 맞서 싸우는 동상을 보니 그때의 상황과 처절함이 고스라니 느껴졌다.

다음 장소는 들불야학 옛터인 광천동성당과 광주 최초의 아파트, 시민아파트 그리고 광주교도소를 방문했다. 들불열사의 역사가 담기고 각종 시국선언문과 계엄군의 만행을 고발한 투사회보를 제작했던 5·18민주화운동의 산실 시민아파트, 그리고 무고한 시민들을 고문하고 시신을 매장했던 광주 교도소, 많은 사상자와 인명피해가 있었고 공수부대에 저항하기 위해 무장투쟁도 불사한 그들의 노고를 절대 잊어서 안되겠다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망월동 묘지로 향했다. 40주년을 맞이하여 생각보다 많은 참배객들이 있었다. 이곳이야 말로 1980년 5월 당시의 참상을 처절하게 안고 있는 곳인 것 같다. 무수히 많은 묘지를 보니 마음이 착잡해졌다.

아직까지도 누군가는 5·18민중항쟁이 ‘무장폭도들의 난동’이라 말하며 진실을 왜곡한다. 그 시절 그곳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고요하기만 하다. 광주를 지켜낸 시민들의 희생과 저항이 없었다면 지금의 광주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광주정신을 끝까지 지켜낸 그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전하고 싶다. 

광주문학관 장소, 문제 없는가

김 종_ 시인, 화가



광주시 북구 각화대로 91, '시화마을'에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지상 4층 규모의 광주문학관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한다. 보도기사를 접하고는 환희작약 각화동 시화마을을 찾았고 적이 놀라고 말았다.

시화마을은 어디서부터 설명할지가 난감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결함들을 들려주었다. 통로가 역방향이고 비좁은 도로 땀에 규모 있는 행사는 아예 불가능이라는 것이었다. 문득 올려다보니 고가(高架)의 제2순환도로가 굉음과 함께 공포스럽게 지나가고 있었다. 이런 환경이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광주문학을 보여주고 즐길 애용공간으로 부적합하다고 여겨졌다. 미래의 문학관은 볼거리 차원에서 광주의 정서와 감동을 담보하고 생산해야 한다. 가족단위로 와서 행사도 보고 풍광도 살피고 휴식도 취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 이유로 문학관은 건립되는 장소가 무엇보다 우선하다는 것이 필자가 갖는 생각이다.

이쯤에 와서 확실해지는 것, 바쁠수록 제대로 가야 한다. 문학관은 언제 지어도 짓게 되어 있다. 이 같은 곳에 세울 문학관이라면 더더욱 그렇다는 얘기다. 무려 25년을 기다렸던 문학관이다. 수절과부처럼 오매불

망 기다린 결과가 이 정도라면 더 이상 못 기다릴 이유도 없다. 명품문학관을 위해서는 '빨리빨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도저도 명품문학관을 목표해야 하니까. 문학관은 시민들을 위해서도 서둘러야 할 공간이지만 광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펼쳐놓고 자랑할 광주를 마케팅 하는 문화상품 중의 하나이다.

언필칭 광주는 '문화수도'인데 '문학관이 없는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장고 끝에 악수 두터라고 그 많은 장소를 놔두고 결정했다는 곳이 하필 시화마을인가.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몸이 휘청거렸다. 문화와 이웃한 미술 쪽의 여러 일들이나 유서 깊은 무등산 자락의 문학적 성과 등이 떠오르고... 문학관 건립 이후의 일들이 더 걱정스러워졌다.

광주와 무등산은 가사(歌辭)문학의 성지이고 한국근현대문학사의 극광(極光)인 '시문학파'가 박용철 시인이 주도한 것은 주지의 일이다. 그런데 전자는 '한국가사문학관'이란 이름으로 담양에, 후자는 '시문학파기념관'이란 이름으로 강진에 넘겨주고 말았다. 이리된 마당에 광주문학관의 일마저 이쯤이니 선조 문인들에게 머리 조아려 용서를 빌만큼 죄송한 일이 되어버렸다.

손가락 빨다가 그리된 것도 아니건만 두 개의 문학

미래의 문학관은 불거리차원에서 광주의 정서와 감동을 담보하고 생산해야 한다. 가족단위로 와서 행사도 보고 풍광도 살피고 휴식도 취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 이유로 문학관은 건립되는 장소가 무엇보다 우선하다는 것이 필자가 갖는 생각이다. 우리 광주는 “가장 늦게”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정성을 담은 명품문학관으로 가야 한다. 이는 누가 봐도 ‘역시 광주’라는 평가를 받아야하고 지금 추진하는 문학관이 그런 문학관이기를 소망한다.

관은 평도 매도 놓친 형국이다. 이런 터에 짓는 문학관이 이리 궁벽하고 불편한 곳이라면 후일 겪을 후회의 쓰나미를 어찌 감당할 것인가. 문학창고를 짓는 일도 아니고 명색이 광주의 문학관인데 이리되면 누구에게도 외면당할 산지기 거문고 신세가 될 게 뻔하다.

우리 광주에서 문학관 추진의 역사는 1996년으로 거슬러 간다. 당시 언론들의 협조를 얻어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문학관을 추진하는 선발주자였다. 그러던 광주가 우여곡절만 거듭했을 뿐 별무성과일 때 우리를 벤치마킹한 다른 지역은 지금 활발히 문학관을 운영하고 있다.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말은 항용 실감될 때가 많다. 그간 행정을 비롯한 주변에다 우리문학인들은 너무나 순진 얌전했다. 그 결과가 오늘의 처지에 이르렀다면 응분의 책임 또한 문학인의 것이다. 최소한 미술관과 연계한 장소쯤은 문학관 부지에 고려대상이 될 수는 없었을까. 그래서 안 되겠지만 문학관의 일이 이쯤이면 새 후보지를 위해 또 다른 어려움을 감내해야 할지 모른다.

문학관 장소로 광주는 명당자리가 수두룩하고 사통팔달이 열린 상태다. 그리고 문학관위원 제위께는 지금의 위치를 두고 토론도 하고 현장답사도 하셨을 것인데 모두들 괜찮다고들 하신 것인지 묻고 싶다. 문학관은 백년대계의 산물이다. 한번 지어지면 다시 짓기

는 정말 어렵다. 마땅한 공간에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 광주는 “가장 늦게”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정성을 담은 명품문학관으로 가야 한다. 이는 누가 봐도 ‘역시 광주’라는 평가를 받아야하고 지금 추진하는 문학관이 그런 문학관이기를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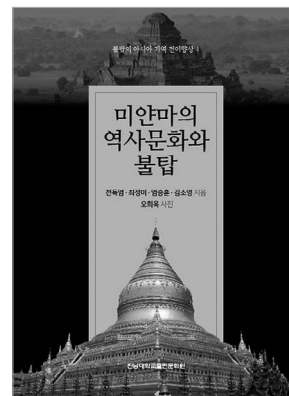
광주미술관이 현재의 중외공원으로 옮길 무렵 한 부분을 돕기도 했고 그 과정들을 기억하는 필자로서는 추진되고 있는 오늘의 광주문학관 부지문제가 이 지경에 이른 일을 새삼 되돌아보고 있다. 후보지 네 곳을 놓고 골랐다는데 다른 세 곳은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이었을까. 선택의 여지가 궁색한 곳이라면 후보지가 여러 곳인들 무슨 소용인가. 현재의 위치에다 짓는 문학관 또한 무엇 땀에 그곳에 지어야하는가를 우리가 묻고 후손에게 답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각화대로에다 짓겠다는 광주문학관은 강력 재고를 요청하고 문학인들의 전진적인 더 많은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늦었다고 짓는 문학관이 남들이 장에 가니까 우리도 가는 그런 문학관이어서는 안 될 일이다. 광주와 무등산이 어떤 곳인가. 이들의 문학적 성과를 빼면 한국문학사를 쓸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문학사적 성과는 크고 눈부시다. 이를 받쳐 세울 문학관은 장소에서부터 신중해야 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 또한 없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미얀마의 역사 문화와 불탑

— 황금빛 신비의 나라 미얀마의 의미 탐색

편집부



전남대 건축학부 천득염 석좌교수와 최정미, 염승훈, 김소영 연구팀이 『미얀마의 역사문화와 불탑 - 불탑의 아시아지역 전이양상 4』(전남대출판문화원刊)를 펴냈다.

이 책은 불탑의 발생과 전래, 그리고 변모양상을 살펴보는 네 번째 시리즈로 이전 시리즈에 비해 좀 더 쉽고 재미를 담으려고 애쓴 연구서다. 제1편 ‘미얀마의 역사와 문화’에서는 웃음 가득한 미얀마인들의 일상적 삶과 미얀마의 역사, 문화를 평이하게 소개하고, 제2편 ‘미얀마의 불탑’에서는 독특한 불교문화를 배경으로 한 미얀마의 불교사원과 불탑에 대해 살폈다.

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불탑의 형식적 유래를 거의 찾아볼 수 없어, 부처의 흔적을 따라 수년간 티베트, 미얀마, 스리랑카, 네팔, 라오스, 인도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발로 뛰고 눈으로 본 연구들을 모아 ‘불탑의 아시아 지역 전이양상’ 시리즈를 펴냈다.

저자는 책의 서문에 ‘나에게 불탑이란 무엇인가, 어쩌다 불탑 연구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오랜 세월을 붙잡고 있다...’로 적고 있다. 또 가끔 부질없는 일이 아닐까 생각도 하지만 스스로의 사명감에 다음 연구와 여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심경을 밝혔다. 미얀마에서 불탑은 단순히 예불을 드리는 곳이 아니라 마을의 랜드마크이다. 동네에서 가장 크고 불탑을 중심으로 동

서남북을 가로 지른다. 불탑은 부처 그 자체다.

책장을 넘기면 페이지 마다 적절한 사진을 담고 있어 여행에 대한 호기심과 읽고 보는 즐거움이 충분히 느껴진다. 미얀마의 국호는 ‘미얀마 연방공화국’으로 ‘빠르고 강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1989년 이후 우리가 알고 있는 ‘버마 인가 미얀마인가’로 끊임 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2008년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며 미얀마 연방공화국으로 바뀌었고 총선에 승리한 아웅산 수지도 현행 헌법을 존중하며 미얀마와 버마를 함께 사용할 것이라 선언하였다.

아무튼 이 책은 저자가 수차례에 걸쳐 미얀마를 순례하듯 걷고 바라보며 불교 유적을 탐사한 기록과 그들의 독특하고 오랜 역사 문화에 다양한 정보를 꼼꼼히 살펴본 후 기록한 연구서이다. 시간의 틈새에서 살펴본 미얀마 사람들의 또 다른 생의 시간은 그들이 건축한 탑이나 사원의 벽돌 한 장 한 장처럼 보시이고 헌신이라 저자는 기록한다.

저자인 천득염 교수는 앞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불탑에 대한 비교론적 연구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네팔, 태국을 비롯하여 신장 위구르와 파키스탄 간다라, 또 중앙아시아의 불교유적에 대한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재단소식]

•사업

네 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
- 김향득 다큐사진작가와 함께하는 '5·18 사적지 공감투어'



네 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 김향득 다큐사진작가와 함께하는 '5·18 사적지 공감투어'가 지난 23일(토) 시민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5·18 사적지 공감투어'는 시민들과 함께 5·18 사적지를 둘러보며 오월 정신의 기억과 올바른 역사인식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화순 너릿재(화순사적) ▲주남마을 인근 민간인 학살지(사적 14호) ▲광목간 민간인 학살지(사적15호) ▲들불야학 옛터(사적27호) ▲광주교도소(사적22호) ▲5·18구묘지(사적24호) 순으로 진행된 이번 투어는, 평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사적지를 중심으로 김향득 다큐사진작가의 생생한 해설이 더해져 참석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한편, 지역문화교류마당은 작년부터 우리 재단이 임회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를 매개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연대

광주문화도시협의회 2020 비영리공익사업 사업내용 논의
우리 재단이 간사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광주문도협은 지난 4월 14일(화) 오전 11시에 광주장애인문화협회 사무실에서 2020 비영리공익사업 준비팀 회의를 열고 주요 사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을 반영하여 생통강좌 2회, 생통포럼 1



회, 달빛 교류 문화단체 탐방을 주요 사업으로 정하고, 간사단체가 사업내용을 마련하여 회람 후 다음주에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한편, 교부가 확정되면 세부 프로그램 구성 및 추진 일정은 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추진기로 하였다.

•조직

김상윤 선배와 함께하는 '민중畵, 민주花'展 번개팀



지난 5월 13일(수) 11시, 임·직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상윤 선배와 함께하는 '민중畵, 민주花'展> 문화번개팀이 열렸다. '민중畵, 민주花'展은 김상윤 전 상임이사의 소장품전으로, 1981년부터 2000년까지 제작된 25점의 민중미술을 전시하고 있다. 김상윤 전 상임이사의 작품 해설을 들으며 진행된 이번 만남은, 예술로 승화된 민주항쟁 당시 시대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서 참석자의 큰 호평을 받았다. 한편,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적 활동 및 재단 임회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매개로 소통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단소식

2020 제 1차 운영위원회 이모저모



코로나 19로 연기되었던 제1차 운영위원회가 지난 5월 12일 (화)에 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변화된 문화 지형 및 광주시 보조금 사업 유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단 산하에 (가) 프로젝트 사업팀을 신설하고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6~7월 중에는 민선 7기 전반기 문화정책 평가 및 발전 방안, 아시아문화원 - 지역사회, 협력과 활성화를 주제로 지역의 문화계와 협력하여 공론의 장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하고, 모임 운용은 위원들이 제안한 주제와 사무처 안건을 중심으로 토론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공동 실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1차 후원이사회 개최

– 재단 창립 15주년 기념 및 후원의 밤 역할 담당하기로



코로나 19로 연기되었던 제1차 후원이사회가 지난 5월 21일 (목)에 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재단 회원과 조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 올해 재단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의 행사의 프로그램과 준비 과정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한편, 후원이사회는 격월(짝수달)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개최하고, 모임 운용은 후원이사가 제안한 주제와 사무처 안건을 중심으로 토론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공동 실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2020년 제 5차 정기 임원회의 열려



2020년 제5차 정기 임원회의가 지난 5월 6일(수) 18시 30분에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재단 목적사업의 추진 사항 및 각 의결기구가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중점 논의하였다. 또한 민선 7기 전반기를 맞아 문화정책 진단 및 발전 방안 포럼, 아시아문화원과의 공동 포럼은 관련 의결기구가 담당하여 추진하되 지역 문화계와 협력하여 추진토록 위임하였다.

한편, 오는 5월 28일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이 개관을 함에 따라 우리 재단의 입장을 정리하여 논평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문화담론지 『창』 봄호 평가 및 여름호 기획 편집위원회 개최



문화담론지 『창』 봄호(통권 48호) 평가 및 여름호(통권 49호)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가 지난 4월 16일(목) 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 여름호 특집기획으로 민선 7기

전반기 문화정책(행정) 진단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키로 하였다. 또한 문화진단은 코로나 19 전과 후의 우리 삶의 변화, 마한 문화권 설정의 당위성을 문화현장은 전일빌딩 245 소개하는 내용을 담기로 하였다. 오는 6월 발행을 목표로 하는 『창』 여름호는 문화인 탐구생활, 기획연재, 문화청년그룹 소개, 문화리뷰, 문화톡톡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며지며, 재단 임회원 및 행정, 유관기관, 시민문화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된다.

[회원소식]

김상윤(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 고문, “사회 운동이 곧 예술, 이상 추구하는 같은 길”



지역의 대표적 민주 인사 중 한명인 김상윤 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이 민주화 운동이 아닌 컬렉터로 시민을 만난다.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이 5·18 40주년을 맞아 그의 소장품으로 ‘민중畵, 민주花’ 특별전을 마련했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의 한복판에 서있던 그의 컬렉터로서의 얼굴은 대중의 궁금증을 자아낸다.

“사회변혁운동, 민주화운동이 곧 예술입니다. 세상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운동이 아닙니다. 모든 예술은 이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같은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전시는 5·18 40주년에 걸맞게 1981년부터 2000년에 제작된 작품들이 선보인다. 농민과 서민, 노동자들의 삶, 산업사회의 문명 비판, 현대라는 괴물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담은 작품들이다.

— 〈무등일보〉 발췌

김상집(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상임이사) 후원이사,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별전’ 참여

김상집 후원이사가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별전에 참여한다. 5월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오월민중미술아카이브 사업’을 정리하는 특별전

이다. 그동안 수집된 오월민중미술작품과 기록물 중 미술작품 200여 점, 기록물 200여 점을 내달 16일까지 5·18기념문화센터 지하 1층과 광주광역시 동구 오월미술관 두 장소에서 전시한다.

오월미술관에서 진행되는 ‘그곳에 우리가 있었다’는 미발표 작품을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직간접

적으로 겪은 사람들의 부채감과 분노를 그림을 통해 표현하고 기록한 작품을 전시한다. 김광례, 박기태, 박성완, 박태규, 송필용, 이기원, 이사범, 이준석, 정영창, 최요안, 최진우, 하성흠, 김상집, 그 외 오월미술운동 자료 등 12명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 〈아시아경제〉 발췌

이명란(시인) 후원이사, 문인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의 미 되새긴다



광주문인협회는 위원 10명 중 8명이 참여한 시분과위원회(위원장 박래홍)를 주축으로 한 편집회의를 18일 문협 사무실에서 열고,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문집에 관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집의 발행과 배포 등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탁인석 회장의 시대정신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공약 사항 중 하나로 5·18행사 주간에 앞서 발간을 진행 중이다.

표지 그림은 한국화가와 시인으로 활동 중인 이명란 시분과위원회 사무국장의 작품이 실린다. 표지그림은 ‘사랑을 품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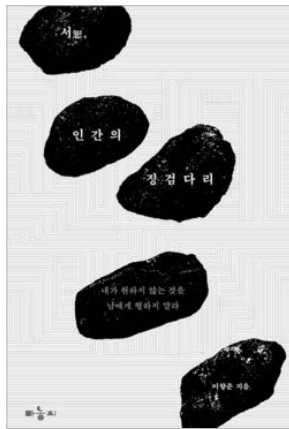


회원소식

명제로 5·18이 어머니의 붉은 가슴이 검게 타버릴 정도로 미완의 그림자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광남일보〉 발췌

이향준(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학술연구교수) 기획위원, 『서, 인간의 징검다리』 출간



공자부터 정약옹까지 ‘서담론’의 궤적을 추적함과 유학 담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향준 기획위원이 『서, 인간의 징검다리』를 출간했다. 이향준 전남대 교수는 ‘서(恕)야말로 두 번째 자리에 오를 만한 가르침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서’에 관한 최초의 통사적 연구서다. 또한, ‘서’라는 말이 유학사에 등장해서 변천하는 과정을 추

적하고 서의 의미를 현대 철학과 연관 지어 설명하면서 서라는 개념을 오늘의 윤리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 〈한겨레〉 발췌

김덕진(광주교육대 교수) 부이사장, 『전라도의 탄생 2』 출간



김덕진(광주교육대 교수) 부이사장이 전라도의 생업의 역사를 정리한 『전라도의 탄생2』를 펴냈다. 김 교수는 “우리 지역 먹거리는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변화돼 왔는가,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 독보적인 비중과 가치를 지녔던 것들이 지금에 와 상당수 흔적을 잃어가고 있는 점이 아쉽다”며 “전국적 명성을 얻었던 전라도 특산물 가

운데 상당수가 20세기에 사라져버렸고, 그 존재감을 타지로 넘겨준 것도 적지 않다. 지금이라도 재발굴해 지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지역산업의 동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취지로 책

을 썼다”고 밝혔다.

— 〈전남매일〉 발췌

조인형(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운영위원, 최희용(세무사) 후원이사, 〈광남일보〉 독자권익위원회 위촉

조인형(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운영위원과 최희용(세무사) 후원이사가 새롭게 확대·개편해 출범한 〈광남일보〉 독자권익위원회에 위촉되었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광남일보〉 독자를 대변해 지면 편집방향을 비롯, 특화 방안, 개선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이게 된다. 박준호 위원장은 “광주·전남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선도하는 등 모범을 보여 온 위원들이 대거 위촉됨에 따라 광남일보의 새로운 변신과 발전이 기대된다”며 “〈광남일보〉가 지역사회를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론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날 선 비판과 함께 따뜻한 격려 등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광남일보〉 발췌

주홍(치유예술가) 운영위원, 민주광장서 게릴라 전시하며 감염병 시대 미술인·음악인·연극인 의기투합

유례 없는 전세계적 감염병 코로나 19로 인해 온 나라가 마비된 가운데 지역 예술인들이 모여 예술을 통한 어려움 극복에 나선다. 코로나 19 시대의 미술행동 게릴라 전시회에 주홍 작가가 참여했다. 미술인 뿐만 아니라 음악인, 연극인 등도 참여해 뜻을 함께 한다. 주홍 작가는 “대만의 큐레이터 우다권이 ‘예기항역’이라는 생각해보란 의제를 우리 예술인들에게 던져줬다”며 “예술로서 역병에 맞서 싸운다”는 말인데,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미술을 재밌고 즐겁게 전시하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미술행동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모범을 보이는 전시를 할 예정”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좋은 기운을 받아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 〈무등일보〉 발췌

정현애(오월어머니집 이사장) 이사, ‘내 안의 그녀 - 오월 꽃이 화알짝 피었습니다’를 주제로 전시 참여

광주여성가족재단이 4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 재단 8층 여성전시관 허스토리(Herstory)에서 기획전시 ‘내 안의 그녀’를 개최한다. 이 전시는 광주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사)오월어머니집의 어머니 25명과 조각가 정진영 씨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내 안의 그녀 - 오월 꽃이 화알짝 피었습니다’를 주제로 전시를 함께 기획했다. 이들은 지난 4년 간 매주 월요일 미술작가 정진영 씨와 다양한 미술창작활동을 통해 열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해 가며 주변인들에게까지 그 감동을 전했다. 정진영 작가는 “어머니들과 몇 년 동안 미술활동을 하면서 이들이 진정한 작가이자 예술가라는 생각을 했다”며 “오월 어머니라는 숭고한 정신의 프레임을 넘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고 있는 그녀들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 〈전남매일〉 발췌

남성숙(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이사, 〈뉴스 1〉 광주전남본부 - 〈광주매일신문〉 상생발전 업무협약



〈뉴스 1〉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상풍 대표와 〈광주매일신문〉 남성숙 대표는 4월 20일 상생발전 협약을 맺고 양 언론사가 상호발전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사는 기사공유와 함께 각종 기획행사에서 적극 협력하면서 상호발전해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상풍 대표는 “앞으로 양 사가 도울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도우면서 상호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성숙 대표도 “형식적인 협약이 아닌 실질적인 상호 도움이 되도록 우리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토

론회나 심포지엄 등 학술행사, 각종 문화예술활동도 공동개최해 뉴스통신과 신문·TV가 융복합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사는 앞으로 실무진 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뉴스1〉 발췌

2020년도 재단 신규회원 “환영합니다”

이체회원

- 손종국(광주 서구갑 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김오성(광주시립민속박물관장)
- 조광철(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사)
- 김용구(한국폴리텍대학교 교수)
- 조영오(한결유기축산 대표)
- 주정민(전남대 교수)
- 김승원(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이사)
- 박대수((주)남동유통 대표)
- 이지호(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간사)

연납회원

- 이명란(시인)
- 박병주(쌍채북춤보존회 내드름 대표)
- 조계현(윤상원기념사업회 상임이사)
- 이이남(미디어아티스트)
- 장지원(SDS 교장)
- 서택진(문화시민)
- 박종남(광주시 공무원)
- 이해민(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평생회원

- 김 성((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재단 가족의 마음을 담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김덕진 이사 빙모상(4. 07)
- 이민원 이사 부친상(5. 07)

함께하는 사람들



재단법인 지역문화교류재단 임원현황

이사회

〈이사장〉

백수인 조선대 국어교육과 교수

〈부이사장〉

김덕진 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

안태기 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정광민 건축사사무소 서로 대표

〈상임이사〉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이사〉

김대현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 성 전 국회의원장 비서실장, 광주대 초빙교수

김영주 (주)광주전남CT협회 회장

김정희 시인

김하림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노성태 국제고등학교 수석교사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지오시티(주) 대표

박요주 세무사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선현주 (주)선앤김메디팜 대표이사

오건규 화가

이민원 광주대 세무경영학과 교수

이승권 조선대 프랑스어과 교수

이연수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철우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정현애 흥복학원 이사장

지형원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포럼 회장

〈감사〉

윤만식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차일현 세무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안태기 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부운영위원장〉

박홍근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신영 소설가

〈운영위원〉

구용기 사직문화보존시민모임 대표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성수 SDC Korea 대표

김성환 리얼플랜광주 대표이사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썬 대표

김옥렬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상임대표

김향득 사진작가

김혜선 광주과학기술원 CT연구소 연구원

정성구 (주)도시문화집단CS 대표

조인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조재용 비콘컴퍼니 대표

주 흥 화가,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진시영 미디어아트 작가

이상필 동신대 교수

한 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연구소 기획위원회

〈연구소장〉

김덕진 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기획위원〉

김광욱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원중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연구실장

노성태 국제고등학교 수석교사

노영기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지오시티(주) 대표

이향준 전남대 철학교육연구센터 연구원

후원이사회

〈후원회장〉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부회장〉

이대성 (주)웹매직 대표

최형주 (사)5·18구속부상자회 이사, 목포지회장

〈후원이사〉

고영주 부성포장 대표

김경옥 약사

김동규 준이엔히대표

김병균 강토이앤씨 대표

김상집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성환 (주)마실코리아 대표이사

김용혁 (주)울림 부사장

유병연 삼진종합건설 기술이사

이명란 시인, 문학전문 강사

장지원 SDC 교장, 전 기아타이거즈 운영부장

천형욱 변호사

최화용 세무사

황재익 오스메딕 대표

이영재 청년인턴

최지화 청년인턴

광주문화도시협의회(간사단체)

김여정 간사

편집위원회

〈위원장〉

김정희 시인

〈편집위원〉

김향득 사진작가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박신영 소설가

조온윤 시인

재단사무처

이기훈 상임이사

이지은 운영팀장

이지호 사업간사



다시 2020 여름 49호 『창』을 펼칩니다.

창밖의 거리는 벌써 더위가 점령해 버렸는데 바이러스는 물러서지 않네요.

어느 시인의 시가 생각납니다.

‘...그 가장 아름다운 것 속에 더 아름다운 피 묻은 이름, 그 가장 서러운 것 속에 더 타오르는 찬란한 꿈...’

바이러스가 가져다 준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그래도 ‘40주년 5월’을 아직 식지 않은 가슴에서 꺼내어 ‘그 숲의 시절로 가보기’도 했습니다.

이번 호 창에서는 「민선 7기 전반기 문화정책 진단 및 발전 방안」을 특집기획으로 각계의 의견을 담아 보았고 코로나-19의 태풍에 휩쓸린 지역 문화예술계와 공연 현장의 이야기도 경청했습니다.

계간 『창』을 펴내고 다음호를 기획할 때면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 설렙니다. 어떤 인물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돌아볼까... 그렇게 거의 10여 년을 훌쩍 넘긴 것 같네요. 시간은 모든 일 속에서 익어간다지요. 함께 해주신 필자 분들과 기억할 수 없는 해안의 독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후원회원 가입 안내

지역문화교류 패러다임의 견인차로서
작은 씨앗을 뿌린 지 어느덧 15년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풀뿌리 시민문화재단의 가능성을 확인했던
우리 재단은 더 많은 인과 덕의 향기로
사람들이 절로 모여드는 사랑받는 문화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문화발전의 소중한 자양분이 되고자 합니다.

회원구분

- 평생회원(100만 원 이상 후원회원)
 - 유지회원(월 1만 원 이상, 1년 일시불 납부 가능)
 - 후원계좌 : 광주은행 019-107-318262
 - 예 금 주 :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 문 의 : 062-234-2727 / 이메일: r-cultural@hanmail.net
- (재단홈페이지(www.rcet.or.kr))에서도 회원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회원이 되시면, 회원으로서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리시고
후원해주신 회비는 연말소득공제혜택을 받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